행복한 교육
웹진 사용 설명서

http://happyedu.moe.go.kr

행복한 교육 웹진 이용이 불편하셨다고요.
새 단장을 통해 온라인 구독의 편의성을 증대하고
소통의 장을 확대하였습니다.
생생한 교육현장 이야기, 깊이 있는 정책을 웹진에서 만나보세요.



교육부

02 vol.475
2022 FEBRUARY

행복한 교육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04 2022 교육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10 꿈이 영그는 현장
충북 봉명초등학교
동충서돌, 다문화교육의 답을 찾아가다

22 네 꿈을 펼쳐라
대전전민고등학교 킨볼동아리 '전진'

40 교육웹툰
탄소중립을 위해 다 함께 행동해요



교육부

5년간의 교육분야 주요 성과

코로나 상황 선제 대응

중단 없는 학습 제공

전체 초·중·고 온라인 개학('20.4.)
- 스마트기기 지원: 희망학생 전원
- 교원 노후PC 교체: 25만 여대
- e학습터·온라인클래스 증설: 일일 300만 명 이용 가능

대학 전면 원격수업 허용('20.3.)
- 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 : 10개소 구축
-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사업: 237교 1,000억

학교방역 지원

'20.2.~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20.3.~ 자가진단 앱 운영
'20.5. 학교밀집도 조정 등교·원격수업 병행

'21 학교방역인력 지원
1학기 5만 명, 2학기 6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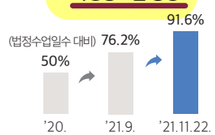
안정적 수능 시행

'20.12.3. 약 42만 명
'21.11.18. 약 45만 명

※확진자 응시보장('20. 41명, '21. 96명)

선제적 일상회복

학생등교율 향상



교육분야 백신 우선접종

유·초·중등 교직원, 고3 등 우선접종 완료
※교직원 95.4%, 고3 97.3% 접종(21.9.17. 기준)

12~17세 백신접종 추진('21.10.~)

교육회복

교육회복 종합방안 수립('21.7.)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등 교육결손 해소

'21.하. 약 2,600억 원

취업지원

직업계고 자격증 취득, 실습생 멘토링 지원
'21. 81억 원

전문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지원
'21. 215억 원

교육 국가책임 강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 유치원 3법 개정('20.)
  - 교비회계 관리
  - 사립 K-에듀파인 의무화
  - 학교급식법 적용
- 국공립유치원 확충

'18~'21. 3,382학급

유아교육비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지원
('18~, 약 2조 원)

유아학비·보육료 지원금(월)

22만 원 ('13~'19.) → 24만 원 ('20.) → 26만 원 ('21.)

초·중·고 교육비

고교 무상교육
'19.2학기 조기 추진 → '21. 완성
연 160만 원 학비부담 경감

교육급여
'17. 대비 '21. 420% 증가
(초·중·고 평균)

대학 등록금

반값등록금 수혜자
'17. 53.5만 명 → '20. 69.2만 명

입학금 폐지
'18. 국공립대 → ~'22. 사립대

학자금 대출금리
'17.상. 2.5% → '21. 1.7%

돌봄 체계 강화

초등돌봄교실
'17. 11,980실 → '21. 14,774실

마을돌봄기관
'17. 4,357개소 → '21. 5,261개소

온종일돌봄 참여인원
'17. 33만 명 → '21. 44.3만명

기초학력 보장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신설('21.3.)

기초학력보장법 제정
('21.9.)

특수교육 여건 개선

- 특수교사 4년 연속 1,000명 이상 증원
- 특수학교·학급 14교, 1,717학급 증설('18~'21.)
- 특화과정 제공 국립대 부설 특수학교 3교('21~, 설립 추진)

취약계층 교육지원 확대

다문화 한국어학급
'17. 165학급 → '21. 408학급

탈북 교사 1:1 멘토링 참여
연간 1,500여 명

학업중단 미취학·학업중단 학습지원
'17. 46명 → '21. 1,276명

대안교육 대안교육기관법 제정
('21.1.)

CONTENTS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행복한 교육**
vol.475 **2022 FEBRUARY**



26
특별기획
"할아버지 선생님 감사합니다"

젊어서는 교육에 온몸을 던진 열혈교사였으며, 은퇴한 지금은 풍부한 경험과 여유로운 시간을 바탕으로 봉사를 통해 인생 2막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영원한 선생님 '퇴직 교원'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인생 100세 시대 은퇴 후 35만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전문가의 의견 등을 소개합니다.

앞만 보고 달려온 40년 교직 인생, 은퇴한 지금은 '교육봉사자'
은퇴 교원, 지역사회참여 통해 실천적 지식인으로 거듭나다
은퇴 후 35만 시간, 노후를 디자인하라

46
교육포커스
교사가 아닌 외부 전문가의 수업, 어떻게 보시나요?

지난해 국가교육회의가 실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위한 국민 참여 온라인 설문' 결과, 고교학점제 도입 시 교원 자격증이 없는 외부 전문가의 단독 수업에 51.5%가 찬성했다. 반대는 37.2%였다. 찬성 측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과목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대 측에서는 수업의 전문성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는 의견을 내놨다. 교사가 아닌 외부 전문가의 수업에 대한 양측 의견을 짚어봤다.



교직개방,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외부강사의 노하우 이상이 필요한 교실

행복한 교육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전교생 490명 중 185명이 다문화 이주민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 충북 봉명초등학교(교장 손희순). 이곳에선 현지 언어를 배우며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 서로의 문화를 배우며 친구가 되어가는 학생들이 있다. 봉명초는 다문화 학생 대상의 집중적인 한국어교육과 일반 학생들을 위한 상호문화이해교육으로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다문화교육을 펼치고 있다.

발행일 2022년 2월 1일
발행처 교육부
발행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편집인 대변인 최성부
기획총괄 홍보담당관 임용빈
사무관 이인숙 주무관 강미진
편집장 이순이
기 자 양지선, (객원)김혜진, (객원)강지영
사 진 김경수, 이대원
디자인 김자영
마케팅 류광민
편집부 서울시 중구 퇴계로 36가길 10 세정IT빌딩 304호
(주)전우용사촌
웹 진 www.happyedu.moe.go.kr
제 보 eduzine21@gmail.com
전 화 02-2271-0992

• 본지에 수록된 기사·사진·일러스트의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CONTENTS

02
vol.475 **2022** FEBRUARY







04 2022 교육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온전한 학교 일상회복의 본격적 추진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대전환
신뢰받는 포용사회 구현
현안과제 : 청년 지원 및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26 특별기획
"할아버지 선생님 감사합니다"
앞만 보고 달려온 40년 교직 인생,
은퇴한 지금은 '교육봉사자'
은퇴 교원, 지역사회참여 통해 실천적 지식인으로 거듭나다
은퇴 후 35만 시간, 노후를 디자인하라

10 **꿈이 영그는 현장**
충북 봉명초등학교
동충서돌, 다문화교육의 답을 찾아가다

15 **교실혁명**
학습자 중심의 효과적인 과학수업

18 **삶과 교육**
박기정 부산 용수초등학교 교사
책 속에 풍덩 빠진 아이들과 책 읽어주는 선생님의 동행

22 **네 꿈을 펼쳐라**
대전전민고등학교 킨볼동아리 '전진'
4명의 손끝에서 완성되는 킨볼, "옴니킨! 전진~"

36 **정책을 말하다**
2주기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22~'24년)
고등교육의 체질개선, 미래인재 양성 지원

39 **숫자로 읽는 교육**
6-3-3-4 학제

40 **교육웹툰**
탄소중립을 위해 다 함께 행동해요

42 **교육자치시대**
교육자치-지방자치 연계·협력 우수사례③
학교와 마을, 청소년 자유공간에 모이다

45 **이달의 교육뉴스**
초등학생 희망직업 1위 운동선수, 중·고생은 교사 外

46 **교육포커스**
교사가 아닌 외부 전문가의 수업, 어떻게 보시나요?

50 **진로직업인**
메타버스 플랫폼 운영자_ 이지은 ㈜평행공간 대표
현실과 똑같은 가상공간으로의 초대

54 **일상의 쉼표**
시작을 위한 끝의 도시, 양구

58 **이야기 인문학**
마음의 방을 정리하기 위한 철학상담

61 **명예기자 리포트**
겨울방학에 기초학력 잡아라! 外

64 **웹진 개편 이벤트**
"내가 생각하는 『행복한 교육』은 'ㅇㅇㅇ'이다."

+면접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코로나 위기를 넘어 학교 일상회복,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교육 대전환

교육부는 '코로나 위기를 넘어 학교 일상회복,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교육 대전환'이라는 비전으로 2022년 업무계획을 1월 5일(수) 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에는 지난 4년 반 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기반으로, 코로나 위기를 보다 현명하게 극복하고, 급변하는 사회를 선도하는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지속하기 위한 방향과 전략을 담았다.
교육부는 올해의 3대 핵심추진과제로 ①철저한 학교 방역을 전제로 한 더 나은 학교 일상의 실현, ②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전환, ③국민이 믿을 수 있는 교육과 사회정책 추진을 제시하였다.

2022 교육부 정책 추진 방향

비전: 코로나 위기를 넘어 학교 일상회복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교육 대전환

온전한 일상회복

교육활동 정상화와 집중적 치유	포용적 일상회복 지원
• 학교 일상회복을 위한 철저한 준비 • 더 나은 일상을 향한 학교활동 재개 노력 • 누적된 교육결손의 집중 회복	• 대상별 맞춤형 지원 강화 • 초등돌봄 확대 및 돌봄공백 해소 • 유아부터 대학까지 학비 부담 완화

미래 인재 양성

미래교육 전환	공유·협력 기반 혁신	평생학습 기본권 보장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2.0 • 2022 교육과정·고교학점제 • 인공지능·생태전환교육 강화 • 교원수급·양성체제 개편	• 대학 간 공유·연계체제 구축 • 지역혁신 및 발전 견인 • 산학연협력 활성화 • 학술기반 및 연구인력 육성	• 평생교육바우처 확대 • K-MOOC 매치업 활성화 • 온국민평생배움터 구축 • 맞춤형 직업교육 제공

포용사회 구현

국민이 신뢰하는 교육 실현	융합형 사회정책 추진 강화
• 연구윤리 강화 및 사학혁신 지속 • 고교체제개편 완성 및 유치원 공공성 강화 • 한국교육의 국제적 위상 제고	• 범정부 차원의 사회정책 비전 제시 • 현장밀착형 중점협력의제 발굴·추진 • 더 나은 삶 구현을 위한 협력 강화

추진기반

미래형 교육 거버넌스	사회분야 융합행정 협업·공유 체계	교육 디지털 전환 체계
국가교육위원회-교육부 연계·협력		

01 온전한 학교 일상회복의 본격적 추진

교육부는 그동안 코로나라는 변수 속에서도 학교의 방역체계를 갖추며,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의 배움을 중단없이 이어왔다. 올해에도 코로나 위기를 넘어 학교의 온전한 일상회복과 학생들의 결손을 극복하는 교육회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새 학기 전까지 학교방역지침을 보완하는 한편, 방역인력과 방역용품 등을 아낌없이 지원하여 더 나은 학교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 학교 일상회복을 위한 철저한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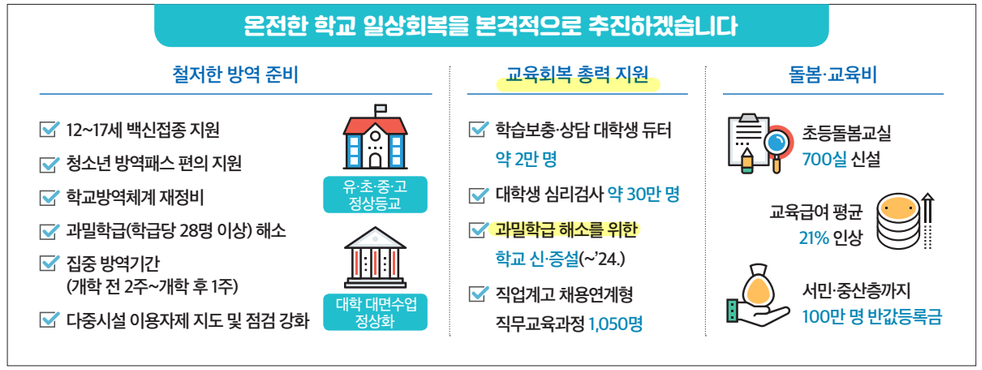
교육부는 새 학기 전까지 12~17세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학교-학부모 소통망을 활용하여 접종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감염상황 및 접종 효과, 백신 안전성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 제공한다. 교직원과 대학생의 신속한 3차 접종을 독려하고, 백신 미접종 유학생 입국 시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즉시 접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백신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있는 만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의료비(실비)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학생들의 충분한 백신접종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청소년 방역패스의 시행시기를 3월 1일(화)로 조정하고, 1개월(3.1.~3.31.)의 계도기간을 둔다. 접종증명의 편의 제고를 위해 주간·월간 단위로 이용자 관리가 가능한 시설(학원 포함)은 월 단위로 확인할 수 있게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며, 휴대전화가 없거나 본인 명의가 아닌 휴대전화를 소지한 학생들은 접종증명을 위해 종이증명서나 스티커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학교에 약 6만 명 규모의 방역인력을 지원하고 교육청별로 학교와 학원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여 필요한 방역물품을 제공한다. 또한, 학생과 교직원의 감염상황, 백신접종률, 오미크론 변이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방역지침을 보완하고 현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안전한 학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까지 학급당 28명 이상의 과밀학급 해소에 집중 투자하며, 2022년 1학기 전까지 총 979개교의 학급증설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개학 2주 전부터 개학 후 1주간을 '집중방역기간'으로 정하여 초·중·고 및 대학 현장점검, 학생·학부모 교육과 홍보 등을 집중 추진하며 겨울방학 중 학생들이 다중시설 이용을 자제하도록 지도하고,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현장점검을 강화하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다 같이 함께하는 방역 분위기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2. 학교활동 재개 노력 및 교육회복 집중 지원

2022년 1학기부터 모든 초·중·고 학교의 정상 등교와 온전한 교육과정 운영, 대학의 대면수업 정상화를 지원한다. 더불어 지역감염 확산 등으로 코로나 상황이 악화될 경우, 신속하게 학교밀집도 조정과 교육활동

을 제한하고 학교 안팎의 방역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비상상황 대응체계도 준비한다.

또 초·중·고 학생 대상의 방과 후·방학 중 교과보충(2022. 특교 3,200억 원)과 함께, 교·사대생 중심으로 학습보충, 상담 등을 지원하는 '대학생 튜터링' 사업을 신설(2022. 국고 1,050억 원)하는 등 지난 2년간의 결손 해소를 위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대학생들을 위한 심리 진단검사(2022. 약 30만 명) 및 치료를 제공하고 대학별 맞춤형 진로지도, 실험·실습, 취업프로그램도 확대한다.



02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대전환

교육부는 우리 교육이 기후환경 위기와 4차 산업혁명으로의 급속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학생 개인의 성장을 중심에 두는 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등부터 고등, 평생교육까지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을 가속화한다.

1. 학생 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 혁신

먼저, 다양한 미래형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구현이 가능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의 전환(2022. 484개교 착공, 518동 사전기획 착수)을 본격화한다. 교육부는 '유연하고 다양한 공간, 스마트 교실, 자연친화적 학습환경, 학교복합화'에 '안전한 학습환경'을 핵심요소로 추가하여 '미래학교 2.0'이라는 더욱 혁신적인 모습으로 학교를 변화시켜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미래 핵심역량을 길러주는 교육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각론을 확정(2022.하)하고, 이에 맞는 교과서 개발도 준비한다. 2025년 고교학점제의 전면

적용에 앞서, 2022년에는 특성화고 도입과 함께 일반계고 84%(약 1,410개교)를 대상으로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하는 등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한 단계적인 준비를 진행한다. 교육부는 대입제도 개편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미래교육을 이끌어 갈 혁신적인 교원을 양성·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교원수급모델에 기반한 중기교원 수급계획(2023~2027)을 수립(2022.상)하고 교육과정 편성·지도·평가와 학생상담 등 한 학기에 걸쳐 실습할 수 있도록 '교육실습학기제'를 시범 운영(2022.하)하는 한편, 교원양성과정 재구조화 등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맞게 교원양성체제도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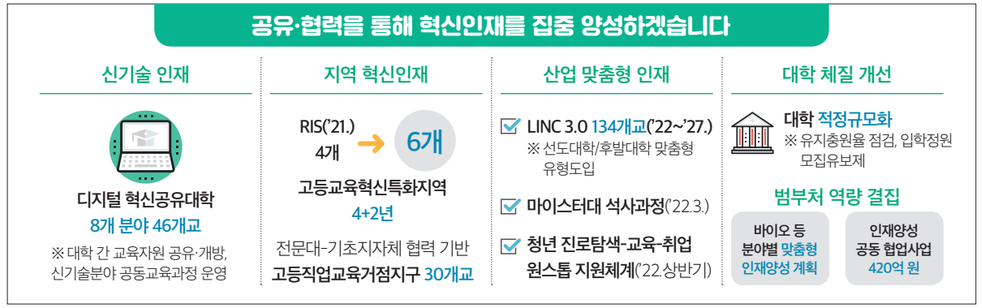
2. 공유·협력을 통한 혁신인재 집중 양성

교육부는 대학들이 교육자원 등의 공유·개방을 통해 신기술분야의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전공에 관계없이 희망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혁신공유대학(2022. 8개 신기술분야 연합)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46개교에 890억 원을 지원하여 디지털 신기술분야의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한편, 집중학기제 등 학사제도를 유연화하고 수강신청 제한 완화 등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또 첨단 분야의 대학원 정원을 유연화하고 학·석사 및 석·박사 간 정원 기준을 완화하는 등 신기술분야 인재양성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대학' 간 협력을 통해 지역 혁신인재를 양성한다. '지역혁신플랫폼'을 확대(2021. 4개 → 2022. 6개)하고, 최대 6년(4+2년)간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고등교육 규제특례(이동수업 운영기준 및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학점기준 완화)를 적용하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신규로 선정·운영한다. 이와 함께, 전문대학-기초지자체 간 협력으로 지역 맞춤형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가칭)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를 신규로 추진(2022. 30개교)할 예정이다.

그밖에도 교육부는 '산업-대학' 간의 동반성장을 위한 산업 맞춤형 인재를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대학-산업 간 협력 성과를 토대로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2022~2027년까지 총 134개교를 대상(일반대 75개교, 전문대 59개교)으로 대학별 특성에 맞는 산학연 협력모델을 구축하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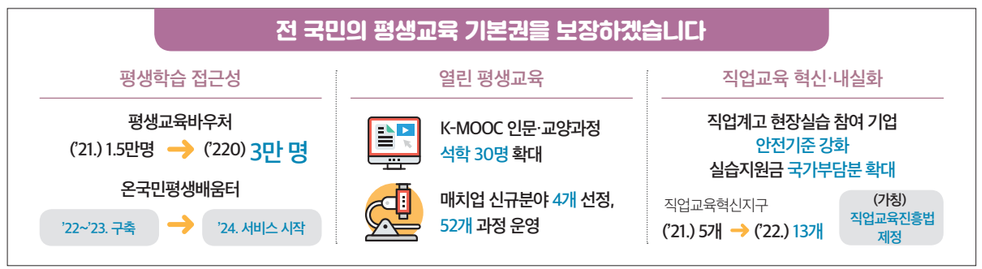
지원한다. 아울러, 범부처 협업 기반의 인재양성을 위해 부처별 정책을 '(가칭)인재양성 기본전략'으로 종합·관리하고, 바이오 등 인재수요가 큰 분야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우선 마련(2022.상)할 계획이다.



3. 전 국민 평생학습 기본권 보장

교육부는 모든 국민이 원하는 시기에 희망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바우처를 확대(2022. 3만 명)하고, 케이무크(K-MOOC), 매치업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지속 개발하는 등 국민의 평생교육 접근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먼저, 전 국민의 인문 소양 함양을 위해 석학 교양강좌(30명 이상), 첨단기술 분야 강좌(신규 20개), 융합·심화과정(10묶음) 등 K-MOOC 강좌를 지속 개발하는 한편, 산업체와 학습자의 의견을 반영한 매치업 신규 분야 4개를 선정하여 52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학교-대학-지역-산업 연계형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23~2027)'에 반영할 예정이다.

그밖에도 안전하고 전문화된 맞춤형 직업교육을 제공한다. 직업계고 현장실습 기업 선정 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현장실습지원금의 국가·교육청 부담을 확대하여 양질의 실습처를 확보한다. 직업계고 졸업생이 지역기업에 취업하고 지역대학에서 후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교육 혁신지구(2021. 5개 → 2022. 13개)를 확대하며 중장기 직업교육 추진계획 마련을 위해 현황조사와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방안'(2018)에 대한 평가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03 신뢰받는 포용사회 구현

교육부는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교육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고,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복잡한 사회문제에 대해 부처 간 협업을 이끌며 선제적·종합적으로 대응하는 등 융합형 사회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먼저, 연구부정 방지를 위한 법령·제도를 정비하고 미수감 사립대(94개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2026)한다. 또 2025년 고교체제개편 완성을 위한 지원 등과 같이 교육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추진해왔던 정책들을 지속한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장관회의 의장국을 수행하며 교육의제를 주도하고, 대학의 해외진출과 정부초청장학생(2022. 1,550명) 등 인적교류 활성화, 교육 공적개발원조(ODA) 확대(2022. 932억 원) 등을 통해 국제적 위상도 강화해나간다.

또한, '2022 사회정책 방향'을 수립(2022.1.)하여 범정부 차원의 사회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중앙부처 외에 지방정부, 산하기관 등으로 협력체계를 확대하여 현장 친화형 융합정책을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폭력 예방, 생활 안전, 소외집단 보호 등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부처 중점협력의제를 발굴하고, 범부처 전담팀(TF) 운영, 협업과제 추진 등을 통해 대책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04 현안과제 : 청년 지원 및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교육부는 3대 핵심 추진과제와 함께, 현안과제로서 '고교졸업자·대학생 등 청년세대 사회진출 지원'과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및 교육부 기능 재구조화·혁신'도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교육부는 청년세대의 취·창업 지원을 위해 '진로탐색-교육-취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고졸자 맞춤형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며 창업휴학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청년 다중채무자(학자금대출+금융권대출)를 대상으로 통합 채무조정을 시행하는 등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도 힘쓸 예정이다. 그 밖에도 대학생, 직업계고 학생 등이 참여하는 '(가칭)교육분야청년소통단(2022.상)을 통해 주기적으로 청년들과 소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2022년 7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과 함께, 위원회-교육부-교육청 간 기능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교육거버넌스 구축을 준비한다. 국가교육회의와 설립준비단을 중심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위한 시행령 제정, 회의 운영규정 마련, 예산 확보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교육부는 급변하는 사회의 요구에 맞게 융합적 사회정책을 선도하고 고등·평생·직업·국제교육을 확대하며 교육격차 해소, 학생안전과 같이 국가가 담당해야 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충북 봉명초등학교

동충서돌, 다문화교육의 답을 찾아가다

행정안전부에서 2021년 11월에 발표한 '2020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충북 봉명초등학교(교장 손희순)가 위치한 청주시는 다문화 이주민이 가장 많이 유입된 지역으로, 다문화 가정 학생이 총 6,6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봉명초가 위치한 봉명동 일대는 다가구주택 밀집 지역으로 이주민들의 정착이 쉬운 정주 조건을 갖추고 있어 이주민 학생의 비율이 매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글_서지영 객원기자



다문화 학생에게 현지 언어로 다가가는 교사들

전교생 490명 중 185명이 다문화 이주민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 봉명초는 여느 학교 분위기와는 확연히 달랐다. 복도에 붙어있는 포스터와 안내문, 쉬는 시간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아이들, 교실에서 아이들을 부르는 교사의 목소리와 칠판에는 무언가 평범하지만은 않은, 색다름이 있었다. 바로 한글뿐만 아니라 러시아어, 일본어, 베트남어 등 여러 국가의 언어를 혼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3학년 교실로 들어가 봤다. 국어수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역할놀이를 위해 극본을 읽으면서 등장인물의 몸짓, 말투, 대사를 파악하고 성격을 짐작해 보는 시간이다.

"호랑이를 만난 나그네의 기분이 어땠을까? 막심 생각은 어때요?"

"아주 좋아요!(очень хорошо!)"

막심의 대답에 아이들이 한바탕 떠들썩하게 웃는다.

"선생님, 러시아 말로도 써야 해요?"

"네, 써도 좋아요."

국어 시간이지만 한글과 러시아어가 칠판에 같이 표기되어 있고, 아이들도 익숙한 듯 한글과 러시아어를 섞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공책에 받아 적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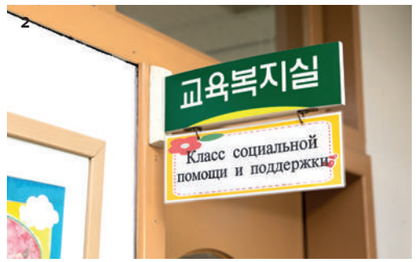
정유리 교사가 담임으로 있는 3학년 2반 교실에는 모두 23명의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다. 그중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중도입국해서 온 아이들이 10명이나 된다. 아이들의 국적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다양하다.

"중도입국한 아이들은 1~2교시 2시간 동안 한국어학급에 가서 한글 자음과 모음부터 시작해서 읽기, 쓰기, 말하기 등을 배우고 3교시에 교실로 돌아와요. 아이들이 매일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수업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러시아어를 같이 사용해서 아이들의 이해와 수업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려고 하는 거죠."

봉명초에는 한국어학급만 6학급이 있다. 시간, 인력, 공간을 전적으로 할애해 아이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한국어교육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다문화 이주민 학생들의 경우 학교 수업시간 외에는 한국어를 사용할 기회가 많지 않다. 맞벌이하는 부모가 대부분인 데다 한부모가정 비율도 상당히 높은데, 아이 교육을 위해 한국어 배울 시간을 따로 만든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주민 가정이니 가정 내에서의 의사소통에는 어려움이 없다는 점도 언어가 빨리 늘지 않는 원인 중 하나다. 또 다른 문제는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할 때 언어장벽으로 인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이다. 전체 다문화 이주민 학생 중 러시아권에서

1 봉명초 다문화 학생들이 배우는 한국어 교재
2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 학교 곳곳에서 러시아어가 혼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3



4



5



6

중도입국한 학생이 161명으로 87%를 차지한다. 소수라면 필요에 의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한국어 공부에 열의를 내겠지만, 같은 언어를 쓸 수 있는 학우들이 교실과 학교 내에서 절대다수를 형성하다 보니 대부분 한글 습득이 더디고 학교 공부에도 쉽사리 흥미를 붙이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정유리 교사가 선택한 것이 러시아어 공부였다. 단순히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만이라도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어서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러시아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정 교사는 이제 웬만한 의사소통에도 능통한 수준이 됐다.

이렇듯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 아이들의 언어를 찾아서 공부하는 이가 정 교사만 있는 것은 아니다. 봉명초에서 근무하는 교사들 상당수가 러시아어로 기본적인 소통은 가능한 수준이다. 또 일본어와 베트남어, 중국어, 몽골어 등을 따로 공부하면서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교사도 더러 있다. 하나의 교실에서 두세 개의 반을 운영하고 있어서 너무 힘들다고 불평을 늘어놓아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사소통이 교육의 기본이라며 자비를 들여 인터넷 강의를 신청하고 퇴근 시간을 미루면서까지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들의 모국어를 배우는 교사들이 봉명초에 있다.

연구학교 지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해 활용

손희순 교장은 2020년 3월에 봉명초로 부임해왔다. 부임 직후부터 현재까지 학교가 직면해온 문제들을 교육청,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와 함께 해결하기 위해 애쓰면서 2년을 보냈다. 고군분투하면서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실 중 하나가 '2021년 다문화교육 연구학교'로 지정된 것이다.

"우리 학교가 타 학교에 비해 업무량이 많고 근무환경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교사들이 기피하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경험과 연륜이 풍부한 경력 교사들이 지원하지 않는 학교가 됐었죠. 다행히 연구학교로 지정되면서 경력자들이 다수 지원해 올해는 기대가 됩니다."

청주시 내에서 관내전보가 전혀 없는 학교였던 봉명초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다. 연구학교로 지정되면서 교사들에게는 성과보수가, 학교 차원에서는 연구지원금이 생겼다. 이 지원금으로 이중언어 강사와 수업 협력 강사를 고용해서 교사들의 수업과 업무부담을 조금은 덜어줄 수 있게 됐고, 종일 근무하면서 통·번역업무를 담당하는 인력도 확보할 수 있었다.

"수업 협력 강사가 역사, 과학, 사회 등 어려운 용어와 이론을 다뤄야 하는 과목에 직접 들어가 아이들에게 설명해주고 질문에 대답해 주면서 학생들의 교육과정 성취도도 전년 대비 많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다문화교육

봉명초는 다문화교육 연구학교라는 명성에 걸맞게 일반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해 수업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함박꽃 프로그램'과 '함박웃음 프로그램'이다. 두 프로그램 모두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친구 나라의 언어, 전통, 문화, 사회, 예술 등을 공부하면서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유도하는 동시에 일반 학생들과 이주민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러시아 전통놀이 체험, 전통인형 만들기 등을 진행했는데, 평소라면 쉽게 다가가지 못하던 아이들도 먼저 다가가 말을 걸거나 장난치는 모습을 보여 프로그램이 아이들의 인식 변화에 유의미한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입증해 보이기도 했다.



7 봉명초에는 한국어학급만 6학급이 있다. 시간, 인력, 공간을 전적으로 할애해 아이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한국어교육에 집중한다.

면접에서 교육 프로그램 아이디어로 활용가능

4~6학년 상호문화이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한나 강사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바로 옆에서 같이 지내는 친구 나라의 이야기라서 아이들도 관심을 가지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다문화 감수성 교육의 효과를 실감한다."라고 말한다.

다문화 이주민 학생과 일반 학생 모두를 끌어안기 위해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하면서 바쁘게 달려온 시간이었지만, 몇 년 사이 급격하게 불어 닥친 변화의 바람은 아직도 봉명초에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남겨 놓았다.

안팎으로 불만의 목소리도 많이 들려온다. 낯선 학교에서 마주한 낯선 언어 탓에 포기와 무기력을 먼저 배우고 이방인이라는 편견과도 싸워야 하는 다문화 아이들, 다른 문화권에서 온 아이들과의 어울림이 힘에 겨운 일반 학생들, 오히려 역차별을 느낀다며 항의하는 학부모들, 그리고 달리다가 지쳐서 번아웃된 교사들까지, 무시할 수도 멈춰 설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봉명초의 다문화교육은 지금도 답을 찾아 달려가고 있다.

손 교장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한다. 중도에 입국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학기 초에는 20명대였던 반이 2학기 땐 30명대를 넘어선다. 때문에 교사들의 고충이 상당하다. 학급인원수 제한도 필요하다. 그래야 교사도 지치지 않고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고, 학생 맞춤형 교육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이제 봉명초는 전체는 부분의 합 그 이상이라는 뜻의 '창발성'이라는 단어에 주목하고 있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글로벌 사회를 경험하게 된 봉명초, 일반 학생과 이주민 학생이 함께 어울려 어떠한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낼지 다음 행보가 기대되는 학교임에 분명하다.



학습자 중심의 효과적인 과학수업

글 _ 진연자 신곡중학교 교사

요즘 중학생들은 Z세대 즉 디지털 세대로 재미를 추구하고 사고가 자유롭습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이 글보다는 그림, 사진, 소리와 같은 시각적인 정보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으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과학의 개념을 차근차근 이해하고 과학적 사고력과 과학적 탐구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과학 수업을 통해 과학의 본질을 경험하고 이 과정을 통해 실생활에서의 문제해결력을 길러주는 것이 과학 수업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교사가 학생들이 과학의 본질을 탐구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지하고 너무 어려우면 학생들은 몰입하지 못하고 포기합니다.

+ 학생들 마하이 "몰입" (교육심리)

Z세대를 위한 과학 수업 디자인

학생들이 도전(몰입)할 만한 수준의 과제를 선정하고, 그 과제를 위한 적절한 도구를 선택하고, 학생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수업의 단계를 작게 나누어 안내하는 것이 과학 수업에서 중요하며, 필자는 이것을 과학 수업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패션 디자이너가 옷을 디자인하듯이, 교사는 수업을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과학 수업 디자인은 탐구 활동과 교과 내용에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을 선택하고, 각 수업 활동을 알맞은 위치에 배치하고, 수업 과정 중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피드백하는 역할 모두가 포함됩니다. 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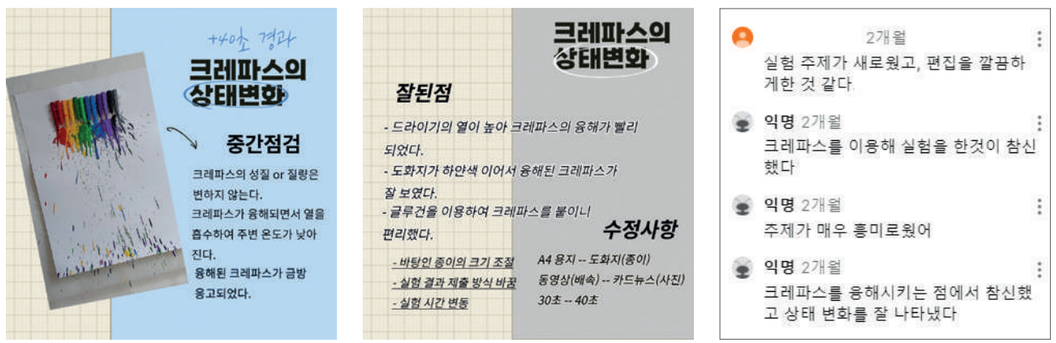
필자는 비주얼 싱킹[1], 학생주도형 실험 수업, 프로젝트 수업, 토론, 글쓰기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의 접목을 통하여 학생들이 교과의 본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수업을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도구의 활용 역시 수업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의 수업 기획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디자인했던 수업 사례 중 학생주도형 실험 수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실험과 프로젝트가 결합된 수업의 형태입니다.

몰입을 이끄는 학생주도형 실험 수업

과학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실험입니다. 학생들은 실험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막상 실험을 시작하면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거나 실험이 어려워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저는 요리책과 같이 안내된 실험보다는 학생들이 직접 실험을 설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며, 설계한 실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해석하고, 변환하는 과정을 통하여 습득된 과학적인 사실들을 정리하여 스스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실생활 속 물질의 상태 변화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하여 편집하는 수업으로 구글 문서를 이용하여 촬영할 수업 상황을 설계합니다. 설계한 수업 상황을 확인하여 교사는 피드백을 하며, 교사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실험을 수정·보완합니다. 구글 문서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므로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학생들이 수업 활동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행평가 전체 진행 과정과 평가 기준을 상세하게 안내하여 학생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계한 실험은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 시기에 집에서 촬영하여 편집하여 과제로 제출하였으며, 온라인 공유 플랫폼인 패들릿을 이용하여 상호평가합니다. 역동적인 수업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은 과학의 재미를 느끼며, 메타인지[2]를 활용한 자기조절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림 1] 학생주도로 이뤄진 물질의 상태 변화 실험 사례



1 자신의 생각을 글과 이미지 등을 통해 체계화하고 기억력과 이해력을 키우는 시각적 사고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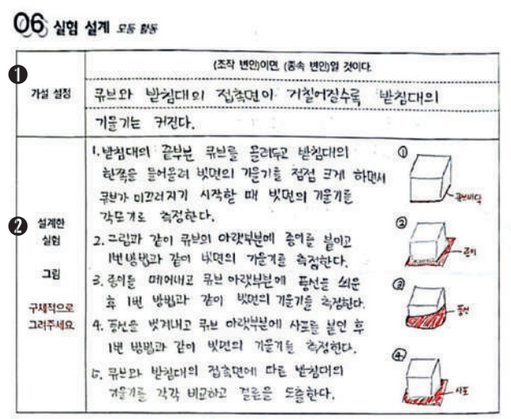
2 무언가를 배우거나 실행할 때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능력

두 번째 수업 사례는 마찰력 실험을 모둠원이 협력하여 실험을 설계하고, 설계한 실험을 직접 해보는 것입니다. 가설을 설정하고, 실험을 설계하고, 자료 해석 및 변환 과정의 경험은 마치 과학자가 하는 탐구 활동과 같으며, 이 과정을 통하여 과학자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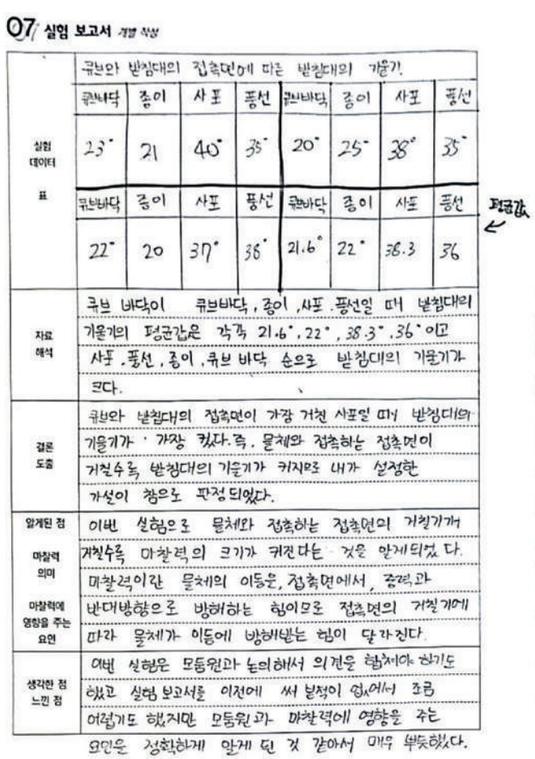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역동적인 과학 수업 활동을 통하여 모든 학생들이 과학 교과의 내용을 이해하고, 탐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학 수업 활동을 통해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이 과학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림 2] 모둠원 협력 마찰력 실험 사례









책 속에 풍덩 빠진 아이들과

책 읽어주는 선생님의 동행



박기정

부산
용수초등학교
교사

부산 용수초등학교 박기정 교사는 책 속에 풍덩 빠져 아이들과 함께하는 독서 활용 교육에 매진 중이다. 책 속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주인공들의 꿈과 미래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행복한 교사로 교직 생활 34년째를 넘기고 있는 그를 만났다.

글 _ 김혜진 객원기자

독서교육 아이디어 (면접)

부산 용수초등학교(교장 이영옥) 2층, 중앙 복도에는 '생각이 자라는 책벌레숲'이 들어서 있다. 바로 독서공간이다. 이곳에서는 매주 두 차례 교사와 학생들이 둘러앉아 책을 읽는다. 교사가 직접 학생들에게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또 다른 날은 학생이 친구들을 위해 책을 읽는 '북리더'가 된다. 용수초의 이 '북리더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온 주인공은 교무부장이자 2학년 4반 담임인 박기정 교사다. 올해로 교직 부임 34년째, 박 교사는 교직 초임 시절부터 학생들의 재능이 다채롭게 발현될 수 있는 교육법에 대해 줄곧 고민해 왔다. 학습지도 영역에서 꾸준히 연구 활동을 해 온 박 교사는 수업연구대회에서도 수차례 입상한 바 있다. 또 용수초 부임 이전에도 교육과정부장, 방과후교육부장 등 15년 가까이 부장을 맡으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적인 교육과정의 설계와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자신의 교과와 접목

매일 아침을 여는 '10분 독서' 활동

"요즘은 저학년 아이들도 휴대전화를 매개로 인터넷으로 소통하는 시대에요. 자극적이고 흥미 위주의 정보에 쉽게 노출되다 보니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었죠. 이와는 대조적으로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독서 활동은 아이들에게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배움이 일어나도록 유도하면서 그 잠재력을 천천히 발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죠. 아이들이 저마다 아름다운 꽃으로 성장하고 여물어가기까지, 그 밑거름이 되는 건 바로 독서라는 굳은 믿음이 생기면서부터 아이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독서 활용 교육을 전개해 나아가기로 목표를 세웠었죠."

저학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만큼, 마치 엄마가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듯, 가랑비에 옷 젖듯 서서히 스며드는 독서 활용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는 박기정 교사의 설명이다. 용수초에서 매일 아침 이뤄지는 '10분 독서' 활동 또한 박 교사의 독서교육 철학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프로그램이다. 박 교사가 담임을 맡은 2학년 4반의 경우 좀 더 특색 있게 운영이 되곤 한다. 요일별로 날마다 다른 주제로 독서 활동을 운영하는 식이다. 짧은 시간이지만, 날마다 다양한 주제의 책을 읽고,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는 토론과 여러 체험활동을 하는 동안 아이들의 사고력과 의사소통역량은 점차 향상되어 가기 때문이다.

"전임 학교에서부터 15년째 부장을 맡다 보니 주로 1~2학년 담임을 맡았었어요. 아이들이 저학년이다 보니 독서 활동도 단순히 책 읽기에서 그치지 않고, 사전과 사후 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죠. 이번 학기만 해도 월요일은 '내 기분 어때?', 화요일은 '참, 다행이야!', 수요일은 '꼬.꼬.무', 목요일은 '말놀이 잔치', 금요일은 '이야기 요정' 등 일주일 동안 다양한 책을 읽고 여러 활동을 수행하면서 아이들은 점차 학교생활과 배움에서도 자신감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죠."

여러 가지 다양한 독서 활동을 통해 기본교과인 국어와 수학은 물론 다른 교과에서도 문제해결력이

향상됨은 물론 친구들과 토론할 때도 논리적인 근거를 통해 자기의 생각을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게 되더란다.

"설안타 선수는 '조금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진행하는 '북리더 활동'의 경우, 북리더를 맡은 학생들은 미리미리 책을 읽어오면서 목소리의 높낮이, 띄어읽기 등 발성과 호흡까지도 세밀하게 구사하는 정도가 되었어요. 친구들에게 책을 다 읽어주고 난 후에는 기억에 남는 장면을 팬터마임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하는데, 친구들이 빨리 알아채고 정답을 맞히게 되면, 북리더 학생은 독서 활동에 대한 보람과 자부심을 그만큼 더 느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지난해 12월 21일 화요일, 2학년 4반 5교시는 동화책 <용기껌 부풀어>를 읽고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수업이 진행됐다. <용기껌 부풀어>는 야구경기 중 껌을 씹으면서 긴장감을 푸는 습관이 있는 설안타 선수를 주인공인 '용기'가 따라 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줄거리의 동화책. 이날 수업 도중 박 교사는 아이들에게 재밌는 질문 하나를 던졌다.

"경기 중에 껌을 씹는 설안타 선수에 대해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경기하는 동안 긴장감이 풀렸다면, 그 팀은 승리할 가능성이 커졌으니 '매우 잘했다.'"는 의견부터 "껌을 삼킬 수도 있어서 선수의 건강이 염려되므로 '매우 잘못했다.'"는 의견까지. 아이들은 각자 품고 있는 생각들을 친구들과 함께 공유해 나갔다. 친구들의 의견을 경청한 뒤에는, 자기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수정하는 학생도 있었다. 수업 중 기자가 만난 주세현 학생은 "경기하는 중에 긴장이 풀려서 용기가 더 생길 수도 있지만, 설안타 선수가 혹시라도 잘못하면 위험에 빠질 수도 있어서 저는 '조금 잘못했다'를 선택했다."라며 소신껏 의견을 들려줬다.

"<용기껌 부풀어>는 12월 한 달 동안 온작품 읽기로 수업을 운영했어요. 책을 읽은 후에는 실제로 풍선껌으로 누가 더 풍선을 잘 부는지 재밌는 대회도 진행했고요. 지는 걸 한사코 싫어하는 한 아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풍선을 부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죠. 이 풍선껌 불기 대회는 학급 소통방 공지를 통해 가정에서 부모님과 형제 등 가족 구성원 대회로도 진행해 보기도 했고요. 이처럼 독서 후 이뤄지는 다양한 활동들은 아이들의 창의력은 물론 가족 간, 세대 간 의사소통능력 등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구성되기도 합니다."



1

"나는 행복한 교사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다시 강화되면서 바깥 활동이 줄어든 만큼 학생들에게 혼자서도 잘 할 수 있는 독서 활동을 더욱 강조하고 싶다는 박기정 교사. 코로나19 장기화로 용수초에서 알차게 운영되던 독서프로그램 하나가 중단된 상태라며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하는 '북토크 동아리 활동'이다. 북토크 동아리 활동은 2017년 교사독서모임으로 처음 시작되면서 2018년에는 학생독서모임, 2019년에는 학부모까지 참여하는 독서모임으로 확장됐었다.

"북토크 동아리 활동은 교사와 학부모라는 입장에서 벗어나 인문학을 사랑하고, 인간에 대해 고민하는 객체이자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삶의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공유하곤 했었어요. 종종 북아트 만들기나 낭송회 등을 통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으로도 진행됐고요.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부터는 오프라인 독서 모임은 아예 운영할 수 없게 되었느니 무척 안타까웠죠."

앞으로 남은 교직 생활 동안 이제껏 아이들과 함께해 왔던 여러 활동을 엮어서 '박기정의 인생노트'를 꼭 작성하고 싶다는 그는 아이들로부터 "늘 노력하는 선생님, 학생들의 입장을 위해 행동하는 선생님, 학생들의 꿈을 응원해 주는 선생님"으로 오래 기억되었으면 좋겠단다.

"학기 중 매일 방과 후에 5~10분 정도의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누군가의 애정 어린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시기의 우리 아이들, 특히 선생님의 따스한 응원이라는 조그마한 꽃씨가 싹을 틔워, 나중에는 더 큰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을 거라는 우리 아이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저는 요즘 굳게 믿고 있죠."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위해 매일 아침 교실 문을 들어설 때마다 '나는 행복한 교사야'라며 마음속 깊이 되뇌곤 한다는 박기정 교사. 정년까지 앞으로 남은 5년, 교직 생활을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무리'에 대해서도 한창 골몰하는 중이기도 하다.


2

1 박기정 교사는 책 속에 풍덩 빠진 2학년 4반 아이들과 함께 온작품 읽기 등 독서 활용 교육을 하며 책 읽는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2 엄마가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듯, 가랑비에 옷 젖듯 서서히 스며드는 독서 활용 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박기정 교사

대전전민고등학교 킨볼동아리 '전진'

4명의 손끝에서 완성되는 킨볼, "옴니킨! 전진~"

지난 1월 6일, 겨울방학을 맞아 조용한 대전전민고등학교(교장 서정남)에 킨볼강습회가 열렸다. 이날 강습회에는 전민고 킨볼동아리부원 40명을 지도하기 위해 한국킨볼협회 배경규 사무국장과 킨볼 국가대표 주장을 지낸 류강래 선수 등이 합류했다. 킨볼의 재미에 빠져 코로나 상황에도 자발적으로 기초훈련과 킨볼경기를 꾸준히 해왔다는 학생들은 킨볼강습회를 통해 잘못된 기본동작을 교정하고 그동안 목말랐던 킨볼 전술을 배우며 오늘도 "옴니킨"을 외친다.

글 _ 이순이 편집장

뉴스포츠 '킨볼' 배우기

- **경기장 규격**: 가로X세로 20m
- **킨볼의 규격**: 1.22m
- **주요 동작**
① 히팅: 공격수가 공을 치는 동작
② 세팅: 3명이 한쪽 무릎을 세우고 앉아 고개를 숙이는 동작
③ 슬라이딩: 공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받아내는 동작
- **규칙**
① 4명을 한 팀으로 하며, 3팀(핑크, 그레이, 블랙) 12명이 함께 경기한다.
② 공격 시, 3명이 세팅한 상태에서 "옴니킨! OO~"하고 부른 후 공격한다.
③ 이때 골찌팀은 호명할 수 없다.
④ 공격에 성공할 경우, 공격팀과 골찌팀이 1점씩 획득한다.
⑤ 13점을 먼저 얻는 팀이 승리한다(시간제의 경우, 10분 안에 다득점한 팀이 승리).

가로, 세로 20m의 실내경기장에서 3팀이 함께 대형 볼을 두고 겨루는 킨볼은 학생들에게는 익숙한 스포츠지만, 부모세대에게는 조금 낯선 스포츠이다. 1984년 캐나다 퀘벡주의 체육교사 마리오 뒤마가 창시한 뉴스포츠인 킨볼은 3팀(핑크, 그레이, 블랙)이 함께 출전해 승부를 가리는 유일한 종목으로 우리나라에는 2009년에 도입됐다. 지름 1.22m 대형 볼을 3명의 선수가 함께 받쳐 들고 공을 받을 팀을 지명한 후 1명의 히터(공을 치는 공격수)가 강서브를 날린다. 이때 공격팀은 수비팀을 결정한 후 "옴니킨(Omnikin)!"과 함께 팀명을 큰 소리로 외쳐야 한다. '옴니킨!'은 '모두 함께'를 뜻하는 '옴니(Omni)'와 신체를 뜻하는 '킨(kin)'의 합성어로 모든 신체 부위를 활용하는 전신 운동, 모든 참가자가 함께하는 신체놀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학업 스트레스 날려주는 뉴스포츠 '킨볼'

전민고 킨볼동아리 '전진'은 2020년에 만들어진 신생동아리로 본격적인 활동 기간은 길지 않지만,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금씩 성장하는 중이다. 동아리부장 김민우(2학년) 학생은 "초등학교때 킨볼을 배웠는데, 정말 재미있었다. 그때



1 킨볼동아리 '전진' 학생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초훈련을 하고 있다.



함께 킨볼을 했던 친구들과 의기투합해서 자율동아리를 만들었다.”라고 소개한다. 동아리를 만들었지만, 운영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고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학교스포츠클럽 리그가 잠정 중단됐고 스포츠 활동이 위축되면서 다른 스포츠 동아리는 문을 닫기도 했다. 김민우 학생은 “우리 동아리는 시험 기간을 제외하고 매주 화·목에 모여서 기본동작을 훈련하고 킨볼경기를 꾸준히 해왔다.”라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스포츠 동아리를 운영해 온 것에 대한 뿌듯함을 내비쳤다.

당시 동아리 지도교사를 찾아 헤매던 학생들에게 운도 따라주었다. 대전신탄진고에서 수많은 킨볼 국가대표 선수를 길러낸 권규연(체육과) 교사가 전민고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권규연 교사는 “신탄진고에서는 킨볼에 대해 모르는 아이들을 데리고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서 킨볼 선수로 키웠다면, 전민고에서는 킨볼경기의 맛을 경험한 학생들이 함께 모여 스포츠를 즐기면서 학업 스트레스를 풀고 체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라고 말한다.

현재 1학년 29명, 2학년 11명이 킨볼동아리에서 활동 중이다. 학생들의 기량은 킨볼을 처음 만져보는 학생부터 경기를 뛰어본 학생까지 천차만별이다. 권규연 교사는 킨볼에 대해 “운동신경이 부족한 학생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스포츠”라고 설명한다.

킨볼에는 몇 가지 독특한 규칙이 있다. 하나는 약자를 배려한다는 것이다. 3팀(12명)이 함께 경기하는 방식도 낯설지만, 공격팀이 수비팀을 호명할 때 꼴찌팀을 부를 수 없다. 그리고 공격에 성공할 경우 공격팀과 골찌팀이 각각 1점을 획득하게 된다. 권 교사는 “스포츠에서 점수 차가 많이 나면 포기하게 되는데, 킨볼은 선두팀과 꼴찌팀의 점수가 크지 않아서 경기가 끝날 때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한다.

게다가 팀원(4명)이 서로 배려하며 화합하지 않으면 공격할 수 없다. 잘하는 1인이 독식하는 다른 스포츠와 비교되는 부분이다. 킨볼은 공격 시 3명의 선수가 동시에 세팅을 해야만 히터가 공을 칠 수 있다. 이때 한 명이라도 공에 손이 닿지 않으면 파울이 된다. 김민우 학생은 “킨볼은 서로 배려하고 화합하며 존중할 때 시너지가 난다.”라며 “부원을 모집할 때도 실력보다는 인성을 보고 선발한다.”라고 말한다.





킨볼 국가대표에게 배우는 강습회

지난 1월 6일에 진행된 킨볼강습회에는 한국킨볼협회 배경규 사무국장과 킨볼 국가대표 주장을 지낸 류강래 선수 외에도 신탄진고를 졸업한 킨볼 국가대표 유승헌, 여석희, 소원이, 유하영 선수가 함께했다. 이날 킨볼의 기본동작이라고 할 수 있는 슬라이딩, 세팅, 히팅 동작을 훈련하고 국가대표급 공격 전술도 공개했다.

김민주(2학년) 학생은 “슬라이딩, 세팅, 히팅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라며 “공격할 때 2명은 킨볼에 터치한 채로 세팅하고 2명은 마지막 순간까지 누가 히트할지 숨겨 수비팀에게 공격 방향을 노출하지 않는 전술이 너무 신기했다.”라고 말한다. 이날 국가대표 출신들의 전술훈련에 학생들은 무척 들떠있었다.

오전 내내 기초훈련을 한 킨볼동아리 ‘전진’ 학생들이 오후에는 남녀혼성팀을 꾸려 실전 경기를 펼쳤다. “옴니킨! 핑크~” 블랙팀의 호명에 핑크팀의 움직임이 빨라졌고 한 학생이 몸을 던져 공을 받아냈다. 이번에는 핑크팀이 “옴니킨! 블랙”을 외침과 동시에 오늘 배운 전술을 그대로 적용해 히팅과 세팅을 준비하던 두 학생이 서로 역할을 바꿔 공격에 나섰다. 허를 찔린 블랙팀의 실수로 핑크팀과 그레이팀이 1점씩을 획득하자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졌다.

킨볼을 즐기는 학생들의 열기로 강당은 한층 뜨겁게 달아올랐다. 열띤 경기 속에서 학생들은 오늘도 스포츠를 통해 배려와 협력을 배우고, 학업 스트레스를 날리며 체력을 키우고 있다. “옴니킨! 전진~”

2 킨볼을 통해 기초체력을 키우고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학생들

3 킨볼은 운동신경이 부족한 학생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여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4 공격에 나선 그레이팀이 ‘히팅’을 위해 힘차게 날아오르자 블랙팀의 한 선수가 공을 받기 위해 위치를 잡고 있다.

“할아버지 선생님 감사합니다”

젊어서는 교육에 온몸을 던진 열혈교사였으며, 은퇴한 지금은 풍부한 경험과 여유로운 시간을 바탕으로 봉사를 통해 인생 2막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영원한 선생님 ‘퇴직 교원’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인생 100세 시대 은퇴 후 35만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전문가의 의견 등을 소개합니다.

27 앞만 보고 달려온 40년 교직 인생, 은퇴한 지금은 ‘교육봉사자’
30 은퇴 교원, 지역사회참여 통해 실천적 지식인으로 거듭나다
33 은퇴 후 35만 시간, 노후를 디자인하라

김영근 전 교장선생님

앞만 보고 달려온 40년 교직 인생, 은퇴한 지금은 ‘교육봉사자’

글 _ 김혜진 객원기자

경북 구미 형남초등학교장을 끝으로 40년의 교직 생활을 마친 김영근(72세) 전 교장. 2월이면 퇴직한 지 꼭 10년째인 그는 학교 안팎에서 현직 때보다 더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 퇴직 후 3개월의 체육전담 기간제 교사를 시작으로, 학교 인력풀센터 행정사무원, 학생안전체험교육 강사, 대구금빛봉사단 학습지도 봉사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동안 다양한 영역에서 참교육을 실천해 왔다. 미소친절 모니터 활동 및 대구시종합복지회관 상담 봉사활동 등 봉사자로서의 삶도 계속 이어왔다. 1월 중순 현재, 김 전 교장의 봉사활동 시간은 1,322시간을 넘기고 있다. 또 2020년부터 2년 동안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 심의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김 전 교장은 퇴직 이후에도 평생학습인으로서 배움의 시간을 오롯이 즐기는 중이다. 퇴직 이후 시와 수필, 동화 등의 글쓰기, 악기연주, 사진 분야 등의 공부를 계속해 오면서 취미생활로도 일상의 풍요로움을 더하고 있다. 오는 2월 중순에는 그동안 공부해온 정보기술자격(ITQ) 시험에도 도전할 예정이다. 김 전 교장은 “은퇴 후 개인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행복했다.”라며 퇴직 이후의 10년을 회고하였다.

다시 학교에서의 ‘참교육 봉사’

“퇴직 직후에는 40년 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으니 좀 쉬자 하고 몇 달 동안 집에만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아프기 시작하더군요. 안 되겠구나, 다시 일할 곳을 찾는데, 마침 집 근처 옥산초에서 기간제

체육전담교사 채용 정보가 눈에 들어왔어요. 담당자와 전화하면서 첫 마디에 하겠다고 했죠. 당시 통화했던 선생님도 놀라셨는지, 정말이냐고 여러 번 되묻곤 할 정도였죠."

기간제 체육전담교사는 퇴직 후 첫 일터였다. 3개월 동안 체육수업은 물론 누가 요청하지 않아도 운동장 가장자리의 잡초 제거까지 직접 나서서 하곤 했다. 2013년 한 해 동안은 대구시교육청에서 학교인력풀센터 행정사무원으로 일했다.

"2017년부터는 대구 이현초에서 학생 안전체험교육을 맡아 했어요. 교통안전, 거리안전, 지진, 물놀이 안전, 화재 시 대피 안전, 완강기 체험 등 학생들의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아이들과 몸을 부딪치며 함께 했습니다. 비상시에 고층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완강기 체험 교육을 할 때는 한 학급을 지도하고 나면,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곤 했었지요."

퇴직 전이나 후나 교육에 관한 생각에는 늘 변함이 없다는 김 전 교장. 요즘도 길에서 학생들을 만나면 '오늘도 아이들이 좋은 것을 많이 배워야 할 텐데'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다. 이처럼 교육현장과 연계했던 수많은 봉사활동 중에서도 김 전 교장은 특히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쳤던 4년여 동안의 활동이 더욱더 큰 보람과 인상적인 기억으로 남아 있기도 하다고.

위로와 공감 나누었던 '상담 봉사'

"지금까지 학교현장이 아닌, 시민들과 함께하는 여러 봉사프로그램 참여도 무척 의미 있었지요. 대구시종합복지회관에서 했던 상담 봉사도 그중 하나였어요. 내방자 중심의 상담을 진행해 오다가 최근 1년 반 동안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전화상담으로 전환됐죠. 주로 지역 어르신들의 생활지도, 코로나 예방과 안전에 대한 정보를 전화로 나누는데, 상담자들이 대부분 저와 연령층이 비슷하다 보니 공감대가 형성되곤 했었어요. 상담하다 보면,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죠. 이 봉사는 저의 체력적 한계로 아쉽지만 지난 연말까지만 참여하기로 하고 종료했습니다."

대구문화재단의 생활예술코디네이터 봉사활동은 시쓰기와 사진찍기 등 김 전 교장의 예술 활동에도 길잡이가 되는 또 다른 배움의 기회였다. 이미 두 권의 시집을 출간하고, 시인으로도 활동하는 그의 시는 현재 대구 시내버스 승차장('반값에 탄다'), 월곡역사공원 야외 전시장('계단의 노래'), 달서어린이도서관('됐다') 등에 전시되어 있다.

"시와 수필, 동화 등 글쓰기를 배우면서 쓴 작품들은 종종 지역 문예지에 투고도 하면서 추억을 만드는 중입니다. 이러한 글쓰기가 여러 매체의 명예기자 활동으로도 연계되어 좋은 점이 많습니다. 글쓰기를 처음 배울 때 10년은 노력하고, 이후에는 내 페이스를 찾아야지 했는데 현재 그 꿈과 도전이 실현되고 있는 것 같아 흡족합니다."

그동안 꾸준히 다져온 작품활동은 다양한 공모전에 참가하여 '제2회 매일 시니어 문학상' 시 부문 특선, 대한민국 독도문예대전 시 부문 입선 등 30건이 넘는 수상 이력을 자랑한다. 일상에서 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는 김영근 전 교장의 시 세계는 계간지 <시인부락(詩人部落)> 2021년 겨울호 '시인 깊이 읽기' 코너에도 특집으로 게재됐다.



1


2


3

1 김영근 전 교장은 <고흐의 달에 묻다> 등 두 권의 시집을 출간했으며, 대구 시내 명소에 그의 시가 전시되고 있다.
2 아이들에게 민속놀이를 가르치는 김영근 전 교장
3 광주 팸투어 중

민속놀이 계승하는 학교를 찾아서!

"일상에서의 제 목표는 일할 때는 열심히 신나게 일하고, 또 쉼이 필요할 때는 신나게 쉬자는 생각입니다. 퇴직 후 5~6년간은 매일 학생처럼 시간표를 짜서 생활하곤 했어요. 요일별로 정보화센터, 도서관, 학원, 배움터를 순회하는 일과의 연속이었죠."

당시에는 매일 아침 8시경에 집을 나서면, 밤 10시경이나 되어야 귀가할 정도로 규칙적인 일과를 계속했다는 김 전 교장. 최근 2~3년 전부터는 체력의 한계를 느끼면서 대외활동을 조금씩 줄여가는 중이다. 건강 관리를 위해 매일 아침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컵 마시기, 소식(小食)하기, 요가 하기, 수성못 걷기, 또 매달 2회 이상은 반드시 산행에 나서기 등을 실천하고 있다. 산에 한 번 들 때마다 시 한 편은 반드시 쓸 수 있도록 자연 속을 걸으면서 시 구상에도 몰입하곤 한다.

"학교를 떠난 이후의 생활 설계는 퇴임 5년여를 앞둔 시점부터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재정 및 건강 관리는 물론이고, 노후를 신나게 보낼 취미생활에 대한 계획도 차근차근 준비하고요. 취미생활은 정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활동 결과가 오래 남는 것을 권하고 싶어요. 또 중요한 한 가지는 이제껏 일하느라 고생했으니, 이제 한시름 놓고 쉬어가야겠다 하다 보면, 퇴임 이후에는 그만큼 뒤처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4

4 은퇴 후 개인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행복했다는 김영근 전 교장

김영근 전 교장이 퇴임을 앞둔 후배 교사들에게 들려주는 조언이다. 김 전 교장은 현재 본지 <행복한 교육>의 명예기자로도 활동 중이다. 2022년에는 특히 명예기자로서 "우리의 옛 민속놀이를 아끼고 계승하는 학교와 학생들을 찾아다니며 널리 알리자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는 귀띔이다. 또 2022년에는 세 번째 시집 출간과 인간관계에 관한 글쓰기, 마음의 수양을 위한 상담 공부를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은퇴 교원, 지역사회참여 통해 실천적 지식인으로 거듭나다

은퇴 후에도 평생 교사로, 실천적 지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이보다 가치 있는 삶이 또 있을까 감히 생각해 본다.

글 _ 정재엽 경기도교육연구원 교육연구사

<프라미스드 랜드>란 영화가 있다. 구스 반 산트 감독은 막대한 양의 천연가스가 발견된 미국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글로벌 에너지 개발 회사와 환경 운동가, 그리고 그들과 생각을 같이하면서 의견이 두 갈래로 갈라진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펼친다. 에너지 회사의 뛰어난 협상가로 등장하는 주인공(맷 데이먼)보다 나에게 더 인상적인 이는 과학자로서의 화려한 삶을 마치고 시골 학교로 내려와 과학을 가르치는 프랭크이다. 대대로 내려온 농장을 삶의 터전으로 일구던 마을사람들이 개발 회사가 건네는 거액의 보상금에 현혹되어 하나둘 농장을 넘기려던 찰나에 프랭크가 등장한다. 교사이자 주민 자격으로 마을공청회에 참석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일시에 여론을 전환시킨다. 대규모 가스 개발이 토양오염과 환경파괴의 문제를 가져올 것이며 결국 마을공동체가 와해될 것을 경고하는 그는 공적 지식인(Public Intellectual)의 전형이다.

은퇴 교원, 지역사회참여의 의미와 실태

최근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인생 100세 시대가 현실이 되면서 은퇴 후에도 재취업과 자원봉사 등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30~40년간의 풍부한 교육경험과 전문 역량을 갖춘 퇴직 교원이 은퇴 후에도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사회참여는 퇴직으로 인한 사회적 역할 상실과 심리적 공허함이라는 장애를 극복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공무원에서 이제는 지역의 시민으로 돌아가 오랜 기간 축적한 교육역량을 지역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환원하는 것이며, 후학양성의 사회적 책무성을 은퇴 이후의 삶까지 이어간다는 큰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퇴직 교직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공식적인 통계 자료는 전무한 실정이며, 일부 공공 간행물과 기사를 통해 퇴직 교직원의 사회참여활동 실태와 사례 정도가 소개되는 정도이다. 관련 실태에 대한 연구 역시 대부분 사회참여활동이 퇴직 교직원들의 개인적 삶의 만족과 자아정체성 회복에 유의미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최근 들어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퇴직 예정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은퇴준비교육이 늘고 있지만, 주로 합리적인 재정 설계와 건강관리 등 퇴직 이후 겪게 될 사회적 변화에 대처함으로써 안정적인 사회 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인생설계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볼 때, 퇴직 교원을 지역교육공동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산으로 보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은퇴 교원의 적극적인 지역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퇴직 전후의 교육프로그램 마련과 지원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역사회 역할에 대한 퇴직 교직원의 인식과 요구

2021년 경기도 내 퇴직(예정) 교직원 6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대부분이 자신이 속한 지역의 평생교육지원활동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요구도 분석 결과 퇴직 교직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요구 수준도 높은 항목은 '지역교육공동체 성장을 위한 역할', '삶의 보람과 활력', '지역사회 교육복지 역할 확대, 지역자치단체 퇴직 교직원에 대한 지역사회 참여활동 기회 제공'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이들은 참여하고 싶은 지역사회 활동으로 청소년 지도, 문화재 해설, 정보교육, 노인복지 및 아동기관 지원, 지역평생교육기관 강사 등 교육형(54.4%)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은퇴 전 가장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은 교육봉사 실천 매뉴얼과 같은 실제적인 지역교육공동체 참여방안(45.6%)에 대한 안내와 교육으로 조사되었다.

퇴직 교직원들과의 초점집단면담(FGI)을 통해 은퇴 이후 지역사회에 참여하여 역할을 하고 싶어도 나이와 같은 현실적인 진입장벽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면담에 참여한 분들 대부분은 체계적인 인력풀 관리와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플랫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교직원 스스로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은퇴 전부터 지역사회 단체나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가입하여 활동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청에서 은퇴 전후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 교직에서 42년 6개월 근무 후 독서지도 경험을 살리기 위해 이력서를 작성해서 관련 기관에 접수했지만, 나이로 인해 거부되거나 서류전형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중략)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자격증도 있고, 인지치료사 면접에 합격도 했는데 학부모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싫다는 의견을 전달받고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
> #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어디 가서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기관마다 찾아가서 정보를 얻지 않고도 쉽게 접할 수 있었으면 해요.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필요한 인력과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플랫폼을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
> # 선생님들이 그냥 학교라는 틀 속에 갇히지 말고 미리미리 지역주민들과 어울리고,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협업하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봐요. 교원들이 지역사회의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평생학습자인 교사가 이끄는 지역교육공동체

교사는 오랜 기간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와 리더십을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학교 개혁을 실현해 온 만큼 은퇴 후에도 지역사회와의 강력한 연대를 통해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와 교육의 형평성, 강력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평생을 복잡하고 어려운 우리 교육의 문제, 학교 현장의 문제들을 도전적인 방식으로 다뤄온 전문가인 동시에 어느 직업군보다 학습동기와 학습력이 강한 평생학습자들이다. 은퇴 교원의 지속적인 학습력과 활동의지를 개인적 만족을 넘어 지역교육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지역사회도 퇴직 교원에 대한 훈련과 사회참여 기회를 차별적인 혜택으로 보는 대신 이를 통해 결국 지역사회가 수혜를 얻는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향후 초고령화라는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과거처럼 전문가나 행정가의 힘과 역할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시민과 이해당사자(고령자), 기업, 전문기관, 지자체가 참여하여 문제에 대한 대안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리빙랩(Living Lab)' 방식이 주목받는 이유이다.

서울시의 <50플러스 캠퍼스>는 혁신, 소통, 공익, 참여를 핵심가치로 동년배의 눈높이 상담부터 생애전환교육, 새로운 일과 활동의 디딤돌이 되어주는 커뮤니티, 자원봉사, 사회공헌 일자리, 창업·창직 지원, 취업 연계에 이르는 맞춤형 원스톱 노후설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수원시의 <누구나학교>는 시민들이 평생학습 기관이 기획한

프로그램에 단순히 소비자로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자와 강사로서 자신의 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오산시의 <느낌표학교>는 시민사회 발전을 위해 능력 있는 시니어 리더를 양성하는 2년제 교육과정으로 50세 이상 시니어들이 모여 친구가 되고, 배움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설계하며 인생 절반의 느낌표를 찾는 과정이다.

최근 경기도교육청 직속의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이 퇴직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마을·지역사회의 다양한 갈등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갈등조정 전문가' 과정**을 개설한 것 역시 의미 있는 변화다. 이처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하는 참여형 실험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 안에서 은퇴 교원들의 적극적인 역할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퇴직 교원 지원방안

퇴직 교원이 지역교육공동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가장 우선해서 교원 스스로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은퇴 예정 교원뿐 아니라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자격연수, 직무연수에서 교사가 참여 가능한 지역사회활동 영역과 범위, 퇴직 교원들의 지역사회참여활동 모범사례 등을 포함한 사회참여 인식 개선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의 교육 사업과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연계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협약으로 인력풀을 공유하고, 퇴직 교원의 활동을 지원하는 중간조직으로서 공동연수를 기획하거나 퇴직 교원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와 활동을 함께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원이 지역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과 문화도 허용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에 대한 교원의 약한 정주의식은 지역의 여러 현안에 대해서 특별한 관점을 갖고 자신의 전문성을 발현하기 어려운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퇴직 교원 중심 학습협동조합 설립과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학습협동조합은 학습자들이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주인의식을 갖고 자율적인 학습에 참여하는 배움 공동체로 퇴직 교원들이 학습협동조합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퇴직 교원의 사회적 역할과 연수를 지원할 교육청 담당부서(컨트롤 타워)를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추진할 직속기관의 역할을 명료화해야 한다.

파울로 프레이리(Paulo Freire)는 교육이 단순히 학습의 토대일 뿐만 아니라 세계를 읽는 데 필요한 전제 조건이자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그 세계를 변화시키는 데에 필요한 전제 조건이라 하였다. 은퇴 후에도 평생 교사로, 실천적 지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이보다 가치 있는 삶이 또 있을까 감히 생각해 본다.

참고문헌

정재엽·박형민·박형성(2021). 지역교육공동체 성장을 위한 퇴직 교직원의 역할 제고 방안. 경기도교육연구원

은퇴 후 35만 시간, 노후를 디자인하라

글 _ 권도형 한국은퇴설계연구소 대표

저출산 고령화로의 인구구조 변화는 한국 사회의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난제이다. 여기에 따르는 진통들이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더욱 깊어지리라 보인다. 그런데 '저출산'을 뺀 '고령화'만을 놓고 본다면 축복이라 할 수 있다. 평균수명 증가로 더 건강하게 오랫동안 노후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60세에 주된 직장에서 퇴직 후 100세까지 생존한다고 가정하면 35만 시간이 훌쩍 넘는 노후생활이 주어진다. 그런데 여기에는 '준비된'이라는 단서가 붙는다. 충분한 준비를 거쳐 성숙하고 선진화된 사회는 구성원의 평균수명이 높으며 삶의 질 또한 윤택하다. 개인도 마찬가지다. 충분히 준비된 긴 노후는 축복받은 시간이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고령사회, 준비되지 않은 개인의 노후와 은퇴생활은 감당하기 벅찬 짐이 된다. 변화가 진정한 축복이 되려면 준비가 필요하다. 노후에 대한 인생 디자인이 필요한 이유다.



은퇴 후 삶의 철학과 우선순위 정하기

사실, 교사는 미래를 설계하는 데 매우 능숙한 분들이다. 학생과 소통하고 그들의 성장을 바라보며 인생의 비전과 철학을 세워주고, 그들에게 헌신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잡고 실천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것을 교사의 은퇴설계에 적용하면 매우 유익하리라 생각한다.

교사의 소명은 은퇴를 기점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은퇴 후의 소명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것을 깨닫고 은퇴 후 삶의 비전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첫 단계가 되어야 한다. 은퇴 후 삶의 철학과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천 계획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사의 은퇴설계는 깊은 자아성찰에 뿌리내린 인생 비전을 중심으로 은퇴 후 재정관리, 가족관계 및 인간관계, 건강관리, 취미와 여가 등의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망라해서 계획되어야 한다. 이 계획은 은퇴를 기점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은퇴 이전의 구체적인 준비 활동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즉 은퇴 시점에 맞추어 단절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 기간을 거치며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은퇴 전에 계획 세우고 교육훈련 등 미리 준비하기

교사의 은퇴 후 역할이 매우 다양해졌다. 사회운동, 봉사, 비즈니스, 교육의 연장, 학문 분야, 취미, 예술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이 퇴직 교사의 손길을 기다린다. 다만 미리

준비하지 않기에 이 분야들이 눈에 잘 띄지 않을 뿐이다. 전통적 교육 영역이든 새로운 영역이든 은퇴 이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고 교육훈련 등을 통해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은퇴에 즈음하거나 직후에 갑작스럽게 역할을 찾으려 한다면 선택의 폭이 매우 좁아질 수 있다.

건강을 챙기고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 역시 훌륭한 은퇴설계다. 건전한 생활이 몸에 배어 있는 교사의 특성상 일반 직업인보다 건강관리가 뛰어나다. 그렇지만 건강상 취약점이나 지병을 지닌 교사도 꽤 있다. 이 부분을 점검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많은 시간을 함께해야 할 배우자, 자녀와의 관계에 소홀한 점이 없는지를 깊이 대화하고 공동의 은퇴설계를 하는 일도 중요하다.

정서적 측면의 준비도 소홀히 할 수 없다. 나는 교사가 적어도 이 영역의 은퇴설계에서만은 탁월하리라 생각해왔다. 그러나 뜻밖에도 많은 분이 은퇴에 대한 두려움, 은퇴 후의 상실감, 무력감, 우울감 등에 휩싸이는 것을 보았다. 교사라고 해서 은퇴와 나이 듦의 고통이 피해 가는 것은 아니었다. 은퇴 후의 비전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준비를 하며 긍정적 은퇴관 아래 체계적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때, 그리고 배우자, 가족, 새로운 커뮤니티와 연합하며 관계를 돈독히 할 때 은퇴 증후군으로부터 자유로우리라 믿는다.

이렇듯 은퇴 후의 비전을 바탕으로 한 종합 은퇴설계를 하되, 준비 계획과 이행 계획을 함께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 문서로 작성하고 준비하는 동안 계속 보완하며 완성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좋다.

특별하고 의미 있는 시간계획 세우기

교사의 은퇴를 떠올려보면 경제적인 면에서 여유만 있다면 시간이 넉넉하게 주어지니까 할 수 있는 게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은퇴 후 넉넉한 시간이 오히려 고통이라는 분들이 많다. 시간이라는 게 부족할 때는 한없이 소중한데, 넘치게 있으면 주체하기 힘든 속성이 있다. 은퇴 전에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못한 일이 꽤 많았을 텐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그것은 단순히 하고 싶은 일, 희망사항 정도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은퇴 후 풍부한 시간에 짓눌리는 데 3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목표가 없기 때문이다. 은퇴한 후에 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잠깐 스치는 정도로는 목표가 아니다. 구체적인 도달 단계가 정해져야 한다. 둘째, 시간표가 없다. 매일 일상을 어떤 일정에 의해 움직일지에 대한 하루 일과표와 은퇴 후 첫 1년은 어떻게 보낼지, 3년 차에는 무엇을 할지 등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한다. 셋째,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가나 취미, 오락이라 하더라도

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은퇴설계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점 하나를 발견하게 된다. 은퇴생활자금이나 은퇴 후 직업에 대해 비전을 갖고 장기간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는 편이지만, 휴식이나 여가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 놀고 쉬는 데 무슨 준비가 필요하냐고 핀잔을 주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하지만 실제로 전혀 그렇지 않다. 여가 생활도 미리 준비한 사람이 잘한다. 퇴직 후 시간관리에 실패해 TV시청과 음주, 2가지를 중심으로 은퇴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다.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나쁠 뿐 아니라 서서히 자존감을 잃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특별하고 의미 있는 시간계획이 필요하다.

0.7의 법칙을 인생에 적용하자

은퇴를 인생의 두 번째 시즌으로 규정하고 의미 있는 시간계획을 구체적으로 디자인해 볼 것을 권한다. 일단, 즐겁게 몰입할 수 있는 취미, 그래서 그것을 직업으로까지 발전시킬 수 있는 취미생활이면 좋겠다. 이런 취미생활을 부부가 함께할 수 있으면 금상첨화다. 그리고 취미를 통해 다른 사람, 다른 세대와 어울리고 소통할 수 있다면 좋다. 예술적이고 창조적인 영역의 취미 역시 좋은 여가활동이다.

취미와는 다른 영역이지만 교사의 사회봉사는 세상에 굉장히 유익하다. 사회에도 기여할 뿐 아니라 본인 삶의 의미를 높일 수 있다. 사실 분야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본인이 간절히 원하고, 즐거워하고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게 핵심이다. 은퇴들 앞둔 모든 사람들이 교사의 멋지고 아름다운 은퇴를 보고 배울 수 있다면, 그리고 은퇴를 보며 감동하고 그것을 본받으려 한다면, 은퇴는 교사로서의 존엄을 더욱 빛나게 할 것이다.

은퇴 후 35만 시간에 대한 디자인은 분명한 목표가 시작이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다소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큰 성취감을 맛볼 수 있다. 지금처럼 정보량이 많고, 세상이 복잡할 때는 오랜 시간 축적된 지식과 경험, 경륜과 지혜가 중요하다. '빨리 빨리'라는 강박감을 버리고 '0.7의 법칙'을 인생에 적용하자. 자기 나이에 0.7을 곱하면 부모님 세대에서 자신의 실질적인 나이가 된다는 이야기이다. 가령 50세면 부모님 세대에서 35세인 셈이다. 필자는 직접 다양한 상담을 하면서 이 말이 허황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다. 실제로 은퇴하는 중장년층들이 몸과 마음이 굉장히 젊다.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 같은 게 존재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잘 맞아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다. 주된 직장에서 정년을 맞은 후라 해도 무언가 새로 시작하기에 어려운 나이는 아니다. 오히려 인생의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기에 적합한 나이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2주기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22~'24년)

고등교육의 체질개선, 미래인재 양성 지원

글_ 박민영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사무관

우수한 인적자원은 우리나라 경제·산업 발전의 근간으로, 그간 대학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고등인재를 양성·공급하는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발전에 이바지해왔다.

최근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 등 급속한 경제·산업 변화로 신산업 인재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인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대학에 거는 기대와 요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09년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등록금은 동결되었고,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신입생 미충원이 현실화됨에 따라 대학의 재정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대학의 자체 노력만으로는 기술·산업변화, 인재양성 등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전문대 무상화 계획(1,090억 달러)'을 추진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10조 엔 규모의 교육·연구기금을 도입하는 등 주요 선진국은 인재양성기관으로서의 대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학 투자규모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투자 규모는 1인당 교육비 10,633달러(GDP 대비 0.6%)로, OECD 국가 평균인 16,327달러(GDP 대비 1.0%)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

높은 수준의 우리나라 고등교육 이수율을 고려할 때, 고등교육의 질은 곧 경제·산업의 생산성으로 직결되며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로 이어진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신산업 인재수요에 세계 각국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인재양성에 적극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지금의 위기를 발판삼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한 국가 인재양성 체계 고도화가 절실하다.

이에 교육부는 고등교육 생태계의 균형점을 찾고 동반성장하기 위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전략'('21.5월), 국가 인재양성 방향 및 전략을 담은 '인재양성 정책 혁신방안'('21.11월)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정책 방향의 연장선에서, '22년부터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확대·개편하여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중심으로 미래 인재양성 시스템 전반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2주기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22~'24년)은, 1주기('19~'21년) 사업을 통해 대학별로 추진해왔던 자율혁신을 연속적으로 뒷받침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대학이 미래인재 양성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VENT
꼭꼭 숨어라!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은 대학의 ○○성과 ○○성을 기반으로 한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교육부는 각 대학이 인적·물적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교육과정, 환경 개선에 효과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빈칸에 들어갈 정답을 아시는 분은 <행복한 교육> 웹진(http://happyedu.moe.go.kr)에 접속하거나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신 후 이벤트에 참여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2주기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22~'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개요

- (지원대상) '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및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에 따른 일반재정지원대학 147교 (일반대 136교, 교대·교원대 11교)
- (기간/사업비) '22~'24년(3년) / 7,950억 원('22년 기준)
- (지원내용) 일반재정지원('22년 7,350억 원) /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22년 420억 원)
  - (일반재정지원) 대학별 적정규모화 및 특성화 계획을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마련(~'22.5월)하고,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체질개선 지원
  -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정부 부처별 전문성을 토대로, 신기술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의 교육과정 개발·운영 등 투자비용 지원
    ※ '22년 지원규모 : 420억 원 / 미래자동차·반도체 등 14개 신산업분야, 7개부처 참여

'22~'24년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개요

- (지원대상) '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른 일반재정지원대학 97교(전문대 97교)
- (기간/사업비) '22~'24년(3년) / 3,880억 원('22년 기준)
- (지원내용) 일반재정지원('22년 3,880억 원)
  - 대학별 적정규모화 및 특성화 계획을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마련(~'22.5월)하도록 하고,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자율혁신 지원

01 자율성과 책무성의 조화로 대학 혁신성과를 극대화한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추진하는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기존에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한 사업비 집행기준을 더욱 완화하여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각 대학이 인적·물적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교육과정, 환경 개선에 효과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정투자계획과 사업비 집행실적이 우수한 대학은 '23년 이후 추가로 사업비 집행의 자율성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자율성의 확대와 병행하여, 대학이 사업 성과에 대한 책무성을 가지고 책임있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성과와 인센티브의 연계를 강화하여,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대학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다.

02 대학의 자발적 적정규모화를 촉진한다.

학령인구 급감에 대응하여 각 대학이 자체 여건에 맞는 적정규모화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에 수반되는 학사구조 개편, 학생 지원 등 제반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원(일반대 1,000억 원, 전문대 400억 원)한다.

대학은 강점분야를 중심으로 한 특성화 전략 및 중장기 발전 방향 등을 토대로 학부정원 감축, 학부-대학원 간 정원 조정,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및 입학정원 모집 유보 등 다양한 방식 중 대학 여건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여 적정규모화를 추진할 수 있다.

또한, 학생 교육의 질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유지충원율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22년에는 대학별 컨설팅을 실시하며, '23년에는 권역별 유지충원율 하위 대학에 적정규모화를 권고한다. 이때 대학 교육의 질, 대학 운영상 본질적인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에서 권역 내 적정규모화 계획을 적극 반영하여 적정규모화 비율을 권고할 예정이며, 권고를 받은 대학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4년 혁신지원사업비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다.

03 대학의 미래 혁신인재 양성 고도화를 지원한다.

그간 신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들은 개별 부처별로 추진되어 상호 분절적이고 중복적으로 운영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극복하고 전체적인 국가 인재양성 전략을 고등교육 재정지원과 연계하고자,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부처 협업형 신산업 인재양성 유형'을 신설하였다. 고등교육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교육부에서 사업을 총괄하고, 신산업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각 부처들이 개별 세부사업을 추진하여, 대학 특성화 전략 및 자율혁신 계획에 따라 체계적·일괄적인 인재양성을 추진하도록 지원한다. '22년에는 미래자동차, 인공지능, 반도체 등 14개 분야, 7개 부처가 참여하여 42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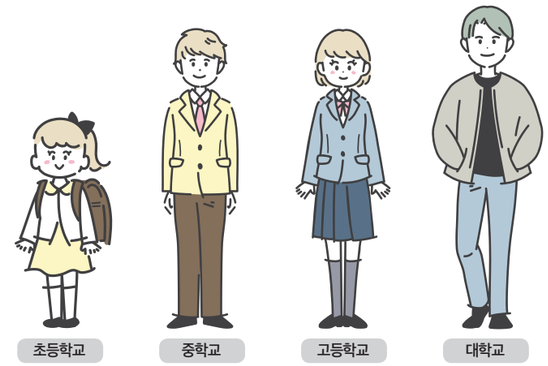
04 공공성·투명성을 확대하고 사회적 가치실현을 도모한다.

대학 운영 전반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 자율혁신계획 수립 및 운영의 전 과정에서 대학 구성원의 참여 및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고 대학 내부의 총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대학 총장 중심의 '대학혁신위원회' 운영으로, 대학 자원을 총괄 관리하고 대학혁신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대학이 수행하는 모든 재정지원사업 간 연계 및 효율화를 통해 성과를 제고한다.

아울러,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지원사업(RIS),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업 등을 통해 촉발된 '동반성장의 고등교육 생태계'가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학 간 교육과정, 교원, 시설 등 공유·협력 및 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추진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이 단순 교육·연구기관에 그치지 않고, 공적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였다.

교육부는 대학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22~'24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여 '22.3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6-3-3-4 학제



대한민국 교육제도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에서 교육받는 6-3-3-4 학제를 채택하고 있다. 1951년 수립된 6-3-3-4 학제는 70여 년간 수정 보완을 통해 대한민국 기본 교육제도의 틀로 자리 잡았다. 6-3-3-4 학제 이전의 교육제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일제는 1911년 「조선교육령」을 공포, 보통학교 3~4년, 고등보통학교 4년, 실업학교 2~3년, 전문학교 3~4년의 학제를 만들어 시민교육을 시작했다. 독립국가로서 본격적 근대교육을 시작한 것은 해방 후의 일로, 미군정 하에서 발족한 교육심의회는 6-3-3-4제와 6-6-4제의 병용학제를 채택, 1946년부터 시행했다.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1949년 교육법이 제정되고 학제는 6-4-3-4제와 6-4-2-4제로 됐다가 1950년에 6-4-3-4제로 변경됐으나 시행해 보지도 못한 채 1951년 교육법 개정으로 6-3-3-4제가 수립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학생의 성장발달 속도를 반영하고 급속한 사회변화와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하며 나아가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그동안 꾸준히 학제 개편논의가 이뤄져 왔으나 복잡한 사안들이 얽혀있는 데다 기회비용에 비해 그만큼의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학제 개편이 이뤄지지는 못했다.

탄소중립을 위해 다함께 행동해요

글_편집실 그림_이정화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을 주제로 부처별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40년 이상의 노후학교 약 1,400개교를 개선하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전환하는 등 디지털·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생태전환 교육을 초중등 교육과정에 포함('22.하)하는 한편, 탄소중립 중점학교를 운영, 학교가 탄소중립 학습과 실현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교육자치-지방자치
연계·협력 우수사례③

학교와 마을, 청소년 자유공간에 모이다

경기도 양평군에서는 군내 12개 읍·면에 구축된 청소년 자유공간을 중심으로 학교와 마을이 연계되는 양평형 마을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다. 오직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 하나로 시작된 마을교육공동체는 아이들이 머물 공간을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돌봄, 인근 학교와 연계한 교육활동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진행하고 있다. 양평군 내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학교와 마을 연계가 이뤄지고 있다는 단월면에 다녀왔다.

글 _ 양지선 기자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은 작은 시골 마을로, 아이들을 위한 보습학원이나 분식집, 문구점조차 찾기 힘든 동네다. 다문화, 한부모 가정이 많은 동네에서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면 갈 곳을 잃고 떠돌았다. 이곳에 청소년을 위한 공간 '선물상자'가 생긴 건 지난 2018년도였다.

"동네 아이들이 비 오는 날 주민자치센터 계단에 앉아 컵라면을 먹고 있던 걸 발견한 게 계기였어요. 학교 수업이 끝난 뒤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머물 공간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단월중 학부모인 이경미 씨는 우선 주중에 공간이 비는 교회 식당을 활용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주변 학부모들과 함께 사비를 모아 떡볶이, 어묵 등 간식을 만들어 아이들을 먹였다. 그 어떤 후원도 없이 학부모들의 힘으로 자생적으로 운영된 선물상자에 마을과 학교의 관심이 더해졌고, 아이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 건물 3층에 어엿한 공간이 만들어졌다. 단월어린이집, 양평단월초, 단월중과 인접한 덕분에 일과시간이 끝나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선물상자로 발걸음을 옮기게 됐다. 아이들이 만든 그림과 작품들로 꾸며진 따뜻한 공간에는 책과 각종 만들기 재료, 간식, 미니 오락기까지 무엇이든 준비돼 있다. 마을에 없던 문구점도 마련해 수업 준비물도 이곳에서 해결할 수 있다.

취재진이 찾아간 날, 학교 수업을 마치고 온 학생들은 따뜻한 마룻바닥에 둘러앉아 블록 만들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무대 영상을 TV에 틀어놓고 노래를 따라 부르는 아이들에게서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았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매일 와요. 친구들이랑 같이 놀 거리가 많아서 좋아요. 이건 제가 만든 펭귄이에요. 잘 만들었죠?" 단월초 3학년 서연이가 블록으로 만든 열쇠고리를 뽐내며 얘기했다. 혜솔이는 "얼마 전에는 목공교실에서 만든 나무 장난감을 어린이집에 전해줬다."라고 자랑했다.

마을의 교육과 보육을 모두 담당하는 곳

선물상자는 아이들에게 머물 공간을 제공하는 데서 나아가 학교와 연계한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반찬 나눔 등 봉사활동도 펼친다. 청소년뿐 아니라 학부모와 마을 주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도 열린다. 지난해 요리, 공예, 미술, 힙합, 독서 수업, 동화구연과 봉사 등 17개 프로그램에 총 1,169명이 참여했다.

선물상자가 날개를 단 건 2019년 양평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해서였다. 학부모들의 자체 후원과 재능 기부만으로는 운영에 한계가 있었지만, 학교를 중심으로 양평군청, 교육지원청, 면사무소의 협업체제가 구축되고 프로그램 운영 협력과 운영비 지원이 이뤄졌다.

신광섭 양평단월초 교장은 "선물상자는 마을의 교육과 보육을 모두 담당한다. 이곳과 다른 지자체 지역돌봄센터의 차별점은 자생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 그리고 공교육에서도 물품 지원이나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다는 한마음으로 움직여 지역과 학교의 협력체계가 무척 탄탄하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기간과 방학 중에도 선물상자는 항상 열려있었다. 스마트 기기가

1 양평군 단월면의 청소년 자유공간 '선물상자'에 모인 단월초 3학년 학생들. 이곳은 학생들의 쉼터이자 학습공간, 문화체험공간이다.

2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 하나로 민·관·학이 한자리에 모였다. 왼쪽부터 이지은 선물상자 센터장, 이현희 단월어린이집 원장, 신광섭 양평단월초 교장, 최지애 단월중 교장, 이경미 선물상자 대표, 최선하 양평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김효정 양평군혁신교육협력센터 장학사

3 선물상자 곳곳은 아이들이 직접 만든 그림과 작품들로 꾸며져 있다.





없는 학생들은 이곳에 와서 수업을 들었고, 급식이 중단돼 굶는 아이들에게는 반찬을 만들어 배달했다. 최지애 단월중 교장은 "교육의 방향이 크게 보면 돌봄인데, 선물상자 덕분에 학교와 마을이 아이들을 같이 키우는 마을교육이 자리 잡게 됐다."라고 말했다.
선물상자에서 활동하는 학부모이자 마을활동가들도 스스로 역량을 키우는 데 열심이다. 이경미 대표는 "학부모들이 함께 모여 경기도 부모또래상담자 양성교육을 받고, 단월중에 계시는 상담 선생님께도 4개월간 교육을 받았다.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모임을 가지며 마을의 아이들을 잘 길러내기 위한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지역과 학교 잇는 양평형 마을교육 모델로

2022학년도에는 어린이집부터 중학교까지, 인근 아이들을 모두 아울러 형제자매, 선후배 관계를 통해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시설·공간에 대한 투자도 늘어난다. 현재 드론교육을 위한 공간 마련을 계획 중이며, 인근 괴일산 정비사업을 통해 산책로 조성과 흙과 나무를 이용한 놀이터 만들기에도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선물상자와 같은 양평군 내 청소년 전용공간 12개소가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으로서 양평군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게 돼, 한층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양평군혁신교육협력센터는 단월면 사례를 바탕으로 양평군 내 다양한 지역에 마을과 학교의 소통 방법을 공유하고, 양평형 마을교육 모델을 만들어 지속 가능한 학습복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효정 양평군혁신교육협력센터 장학사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마을교육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할 때 지역 전문가와의 연계인데, 앞으로 지역의 여러 인적·물적 교육자원을 발굴해 학교와 연계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최선하 양평교육지원청 교육과장은 "마을교육이 과연 실현 가능할까 의문점이 있었는데, 실제로 양평에서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길러낸다는 합일점을 가지고 진정성 있는 마을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코로나 시대에 가장 필요한 역량이 공동체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 양평의 교육 환경은 그 어느 지역보다 앞서있다고 확신한다."라고 강조했다.





4 마을에 없던 문구점도 마련해 수업 준비물도 이곳에서 해결할 수 있다.
5 목공 체험 시간에 나무로 된 스피커를 만드는 학생들
6 입구 앞에는 학생들이 직접 꾸민 미니 정원이 있다.

2022 FEBRUARY vol.475

EDUCATION NEWS

초등학생 희망직업 1위 운동선수, 중·고생은 교사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진행한 '2021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 초·중·고생의 1~3위 희망직업은 운동선수, 의사, 교사 등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희망직업 1위는 운동선수, 중고생은 교사로 전년도와 유사한 가운데 코딩 프로그래머, 가상(증강)현실전문가 등 컴퓨터공학자·소프트웨어개발자 순위가 전년 대비 상승했다.
이번 조사에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7월 13일까지 한 달여 간 온라인을 통해 초·중·고 1,200개교의 학생, 학부모, 교원 총 41,424명이 참여했다.
희망직업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중학생 63.2%, 고등학생 76.3%로 나타났고, 희망직업이 없는 학생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몰라서' 직업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 희망하는 진로활동은 초·중·고생 모두 진로체험을 1순위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고생 모두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현장직업체험형을 첫 번째로 꼽았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를 설정하고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학교 진로교육을 혁신한다.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신산업 분야 진로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여 진로교육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 우울·백신접종 이상반응 청소년 의료비 지원

교육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의 정신건강과 백신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 등으로 인한 신체건강의 회복을 돕기 위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계획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정서 회복을 위한 전문가 심리지원과 정신 및 신체상해에 치료비로 각각 최대 300만 원(최대 총 6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정신건강 위기 학생에 대한 조기 개입을 위해 365일 24시간 비대면 상담서비스인 청소년 위기문자 상담망 '다들어줄개'도 지속 운영한다.
백신접종 당시 만18세 이하인 청소년 중 접종 이후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 등이 발생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보완적 의료비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 대상자 중 의료비 총액이 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 면접

교사가 아닌 외부 전문가의 수업, 어떻게 보시나요?

지난해 국가교육회의가 실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위한 국민 참여 온라인 설문' 결과, 고교학점제 도입 시 교원 자격증이 없는 외부 전문가의 단독 수업에 51.5%가 찬성했다. 반대는 37.2%였다. 찬성 측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과목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대 측에서는 수업의 전문성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는 의견을 내놨다. 교사가 아닌 외부 전문가의 수업에 대한 양측 의견을 짚어봤다.



교직개방,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글 _ 김창학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前)양천중 교감

지난해 11월 24일 교육부는 2024년 초등학교 1~2학년, 2025년부터 중·고등학교에 연차 적용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발표하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중요한 시사점은 고등학교 학사 운영 체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기존 1단위 17시간 기준의 수업량은 16시간으로 전환하여 총 이수학점을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적정화한다. 여분의 수업량을 활용하여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하고, 교육과정 편성의 유연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대의 변화에 맞게 대처하겠다는 교육부의 방향은 옳다고 본다. 그렇다면 학교 현장의 준비는 제대로 되고 있는가?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서 전문공통과목으로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 디지털 정보기술 교양교과 과목으로 인간과 경제활동 등의 교과목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신설교과목을 누가 가르칠 것인가?

국가교육회의가 지난해 5월 17일부터 6월 17일까지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하여 10만 1,2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원자격증이 없는 전문가의 단독수업에 찬성한다는 비율이 51.5%였다. 반대하는 국민은 37.2%이다.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선택과목 확대에 맞춰 교수 인력의 외부 충원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학교 현장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 왜 자격증이 있는 교사가 아닌 외부 전문가의 수업에 51.5%가 찬성하고 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사회의 변화를 학교 현장에서 따라가지 못한다는 인식은 점점 늘어나는 반면, 정작 그 사실을 학교만 모르고 있는 듯하다.

오랫동안 학교 현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학교에서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학생들의 탓으로만 돌려서는 곤란하다. 1차적 책임은 교사의 몫이다. 학생 눈높이에 맞는 수업으로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업의 질적 향상으로 사교육 의존도를 줄여야 하는데, 학교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인식이다.

학교 현장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교관리자는 교사 탓, 교사는 학생들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교육 현장에서 내 탓이 아닌 남의 탓으로 돌리는 순간 교육은 엉망이 된다. 그렇다면 교육 당국은 학생들의 다양한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가에 대한 물음에 답해야 한다.

대학 졸업 시 받은 교원 자격증 하나로 평생을 교단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현행 시스템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교권이 흔들리면 학생 교육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교육계 일부의 논리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시대에 맞게 교육도 변화해야 한다는 사회의 흐름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한다.

시대에 맞게 교육도 변해야 한다

교육통계에 따르면 급격히 줄어드는 학생 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16년 유치원생 수는 704,138명에서 2021년 582,572명, 초등학생 수는 2016년 2,672,843명에서 2021년 2,672,340명, 중학생은 2016년 1,457,490명에서 2021년 1,350,770명, 고등학생은 2016년 1,752,457명에서 1,299,965명으로 나타났다. 불과 6년 사이에 유치원생 17.3%, 중학생 7.3%, 고등학생 25.8%가 감소하였다. 이처럼 학생 수는 급격히 줄어드는데, 학교 교육은 시대의 변화를 이끌지 못하고 있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개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언제까지 교직개방을 미룰 것인가.

현행 교원자격증 소지자들만으로는 변화하는 교육 활동을 전개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학교가 변화의 선두에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현실에 안주하는 경향성이 크다. 현행 자격증 제도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이유다. 새로운 교육환경 변화에 적합한 역량함양 교육, 정보의 폭발적 증가에 따라 단편적 지식의 습득보다 학습한 내용을 삶의 맥락에서 적용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주요 당면한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으로 사회는 한참 앞서가고 있는데, 학교 교육은 낡은 교육으로 사회의 흐름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부 전문가의 투입으로 학교의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가 되었다. 수업 전문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외부 전문가의 진입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바뀐 현실을 그동안 학교 현장은 모르고 안주하지 않았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물론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교사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처럼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데 교육이 기여한 바를 모르는 국민은 아마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자라나는 세대에 맞는 교육으로 보답할 때가 되었다. 외부 전문가의 수업 참여로 기존 교사들도 분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외부강사의 노하우 이상이 필요한 교실

글 _ 김태희 경기 숲속초 교사

코로나19로 온·오프라인 배움을 병행했던 2021학년도에도, 초등학교 교실에는 학교 바깥에서 많은 강사님들이 오셔서 수업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외부강사의 교실 수업에는 종종 문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두드려야 할 듯합니다. 교사는, 교육 전문가입니다. 풍부한 임상경험으로 어린이들을 만나는 직업입니다. 나이 많은 교사에 대한 까닭 없는 불신이 오가기도 하는데, 현장에서는 경륜 있는 교사가 겪은 다양한 아동에 대한 끊임없는 경험이, 특히 갓 초등학교에 입학한 어린이들에게 안정감 있는 학교생활을 시작하는 데 큰 힘이 되어 준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여러 외부강사들을 교육 전문가라 하는 것에 비교해보자면, 수십 년간 교실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겪은 그 임상경험만으로도 교사는 충분히 교육의 전문가입니다.

노하우 전수가 교육의 전문성일까?

외부강사의 수업은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에 치중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교실의 배움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근대 사회에서의 아동에 대한 인식은 그저 '어른의 축소판'으로 여겨지는 정도였지만, 교육론이 연구되면서 '과연 아동을 작은 어른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교육의 장에서 아동 발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은 채, 그저 일방적으로 노하우를 전달하는 것을 전문성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물론, 외부강사는 교사처럼 자신의 임상경험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위치를 점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자신이 준비한 커리큘럼을 쏟아 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외부강사의 수업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교육적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입니다. 구조적인 문제도 더해지는 셈이죠. 더 나아가, 외부강사들의 수업에 함께하면서 '이 정도는 교사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는, '왜 이렇게 하지 않지?'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외부강사의 수업은, 과연 자신들의 강의에 대한 질 관리를 하고 있는가 의문이 들 정도로 그만큼 전문적이지도 않아 보입니다. 반면 요즘 교사들은 꽤나 유능합니다. 교육과정 운영 및 교실살이 이외에도, 특유의 전문성을 토대로 어린이들에게 부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덕택에 매년 같은 학교 교사들끼리 서로 품앗이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곤 합니다. 보드게임을 많이 알고 있는 제가 학기 초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아이스 브레이킹 목적으로 다른 반에 보드게임 강사로 들어가고, 다른 반 교사는 저희 반 어린이들을 지도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교사들이야말로 아동에 대한 임상경험도 풍부하니, 아동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외부강사의 수업보다는 더 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생의 건강한 성장 이끄는 교육자적 책임 필요

물론, 외부강사 중에서도 충분히 많은 임상경험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외부강사의 임상경험과 교사의 임상경험의 가장 큰, 그리고 결코 도외시할 수 없는 차이는 '강사료'에서 발생합니다. 임상경험에 기반한 조언은 강사료가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즉 일자리를 잃지 않는 것을 전제로 이뤄졌습니다. 이는 왜곡된 임상경험의 원인이 됩니다. 물론, 교사는 성과에 따라 '봉급'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책임감이나 전문성이 강사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시선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충분히 수용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현대의 아동 교육관에 대해 다시 한 번 언급하고 싶습니다. 우리 반 학생을 공부 잘하도록 만드는 것만이 교사의 책임감이 아니라,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갖춰 가면서 교실 안에서 배우고 생활하는 가운데 학생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꽃피워갈 수 있도록 지켜보고 지원하는, 어찌 보면 단기간의 성과는 없지만 장기간에 걸쳐 아동을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만드는 것이 교사의 책임이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외부강사로 교실에서 학생들을 만나는 분들은 아동 발달 단계에 적합한 교육학적 지식이나 교육과정 문해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에 나와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 교육대학교에서 4년 동안 줄기차게 배우고 익혔던 것들이 임상경험과 함께 어우러져 아동에 대한 이해를 더해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육 현장에서 외부강사를 모시는 경우는, 1) 동료 교사들로는 메꿀 수 없는 2) 기능 중심의 교수·학습 과정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예컨대 악기 연주-가 있는 3)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협력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로 국한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교실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하시는 외부강사의 경우에도,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것을 넘어서서 아이들의 발달 특성을 이해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커리큘럼과 교실 전반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수 가르치는 교육'이 아닌, 교실 배움의 중심을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둘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운영자
이지은 ㈜평행공간 대표

현실과 똑같은 가상공간으로의 초대



최근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메타버스(Metaverse)'다. 도대체 메타버스란 무엇일까? 부동산 메타버스 플랫폼 '평행공간'을 운영하는 이지은 대표는 메타버스를 "현실과 똑같은 공간을 가상세계에 구축하고, 그 안에서 사회·경제활동 등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메타버스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서울 강남구에 있는 평행공간 사무실을 찾았다.

글_양지선 기자

#이사를 계획하고 평소 마음에 두고 있던 집을 구경했다. 거실과 주방 등 공간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채광도 확인해보니 나쁘지 않다. 집의 구조가 3D로 한눈에 들어와 파악하기에 편하고, 실측도 가능해 가구 배치에도 문제없다. 이사 후에는 하자 점검을 위해 전후 모습을 꼼꼼히 비교할 수 있으니 안심이다.

실제 집을 방문한 것 같지만, 모두 '평행공간' 안에서 이뤄지는 일이다. 부동산 메타버스 플랫폼인 평행공간에서는 실제 공간을 가상세계 안에 그대로 옮겨와 시공간의 제약 없이 공간을 둘러볼 수 있다. 단순히 실사를 이어붙인 것과 다르게, 라이다(LiDAR) 센서 기반의 3D 공간을 구현한다는 것이 평행공간의 차별점이다. 라이다는 빛을 쏴서 물체에 반사돼 돌아오는 거리를 측정해 주변의 모습을 정밀하게 그려낸다. 이를 통해 공간을 3D 맵 형식으로 볼 수 있고, 공간의 실측과 일조량 측정, 가구 배치를 통한 전후 모습 비교도 가능하다.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입주 후 3D 공간을 활용해 하자 점검과 AS 신청도 할 수 있다.

최근 평행공간과 같은 프롭테크(Proptech·부동산에 첨단 기술을 접목시킨 부동산 서비스 산업)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평행공간은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모든 설계정보를 가상공간에서 보여주는 것을 특징으로 시장 선점에 나섰다.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한 이지은 대표는 졸업 후 제약회사에 다니다 새로운 진로를 찾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글로벌 부동산 회사로 이직하며 부동산 산업에 발을 들이게 됐다. 공대생 출신인 이 대표가 업무를 배우며 의문점을 가졌던 것은 '부동산 시장에는 왜 아직 IT 기술이 들어오지 않았을까'였다. 그는 앞으로 현실과 가상공간이 뒤섞이는 세상이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발 빠르게 메타버스를 활용한 부동산 플랫폼 개발에 힘을 쏟았다.

이지은 대표는 "이제 부동산뿐 아니라 스포츠, 교육 등 일상생활에 관한 모든 것이 메타버스로 넘어올 것"이라며 "메타버스 관련 기술개발뿐 아니라 그 속에 담을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대표와의 일문일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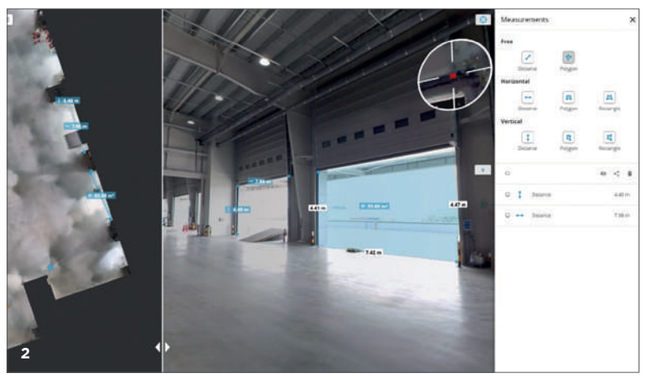
하나, 평행공간에 대해 소개한다면?

평행공간은 이름처럼 우리가 머무르는 공간을 가상세계로 옮겨오는 메타버스 기반의 프롭테크 기업이다. 프롭테크란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부동산 산업에 IT 기술을 접목한 것을 뜻한다. 우리가 집을 살 때 '임장'이라는 표현을 쓴다. 임장은 부동산 거래를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둘러보는 것을 뜻하는데, 평행공간은 디지털 트윈 현실과 동일한 가상세계를 구현하고,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모의실험해 정보를 얻는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 임장을 가능하게 만든다. 단순히 사진을 촬영해



1 평행공간을 이끄는 이지은 대표(사진 맨 왼쪽)와 팀원들. 이 대표는 주로 20대 후반~30대 초반의 젊은 연령으로 구성된 팀원들이 아이디어의 원천이라고 말한다.

2 라이다 센서로 취득한 공간정보는 실제와 동일한 실측값을 제공한다.



이어붙인 것과는 다르게, 실제와 똑같은 3D 공간에서 실측, 가구 배치를 비롯해 일조량도 측정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입주 후 하자 점검과 AS 신청도 가능하고, 3D 상점에서 온라인 결제도 지원한다.

둘, 어떻게 부동산과 메타버스를 접목하게 됐나?

부동산은 실사가 중요한 분야다. 기존에 컴퓨터 그래픽으로만 공간을 보여주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디지털 트윈 기술로 공간을 제대로 구현하면 실사와 똑같은 3D 공간이 만들어진다. 멀어서, 혹은 바빠서 가볼 수 없었던 문제도 해결될 뿐 아니라 같은 공간의 어제 모습, 혹은 한 달 전의 모습도 볼 수 있다. 우리 눈으로 보고 느끼는 모든 정보를 시공간을 초월해 가상공간에서 보게 되는 것이다. 이제 더 나아가 평행공간 안에서 공급자와 소비자가 만나 상호작용과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

셋, 메타버스 관련 직무에는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

새로운 문제를 파고드는 데 흥미를 가지고, 현재 어떤 방향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지 빨리 알아채야 한다. 6개월에 한 번씩 신기술이 업데이트되고 있다. VR(가상현실)·AR(증강현실)에서 이제는 그 둘을 아우르는 XR(확장현실) 기술이 나왔고, 5G 인프라도 구축되면서 이와 연계된 메타버스 시장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컴퓨터 비전 인간의 시각이 하는 일을 자동화하기 위해 디지털 이미지 또는 비디오에서 높은 수준의 정보를 얻도록 하는 컴퓨터 과학의 응용 분야과 머신러닝 인간의 학습 능력과 같은 기능을 컴퓨터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기술 같은 기술을 공부하고, 이런 기술을 시장에 접목할 수 있는 콘텐츠 미디어 공부도 필요하다. 요즘 한 분야에 열중하는 사람을 보고 '덕후'라고 하는데, 자신이 흥미 있는 분야에 파고들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성향을 가진 친구들이 이 일을 하면 만족도가 높을 거다.

넷, 일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아무리 시장성이 있는 분야여도, 처음 창업을 시작하자마자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스타트업 초기에 자금난을 겪는 걸 '데스밸리(Death Valley)'라고 한다. 당장 인건비가 부족할 정도로 자본금이 잠식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마침 신용보증기금의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인 '스타트업 네스트' 공모에 당선되면서 상황을 모면했다. 메타버스 프롭테크 시장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방법이 생긴다는 것을 느꼈다. 동이 트기 전에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다. 시장을 개척하는 건 힘들지만, 힘들다고 포기하면 후발주자가 되어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

다섯, 지금 제일 관심을 쏟고 있는 이슈는?

새로운 기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시장에 들여올지가 고민이다. 작년을 기점으로 NFT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NFT란 대체불가능 토큰으로, 교환과 복제가 불가능하고 저마다 희소성을 지니는 블록체인 기반 토큰이다. 메타버스 안에서 NFT는 디지털 화폐로 사용될 수 있다. 아직까지 NFT에 대한 시선이 분분하기는 하다.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팔린 NFT가 뉴스에 나오곤 하는데, 한편으로는 정말 실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문점을 자아내기도 한다. 어쨌든 이슈가 되고 파급력 있는 기술에 대해서는 계속 공부하면서 어떻게 서비스와 연결해 시장에 침투할 것인지 생각해보고 있다.

여섯, 메타버스 관련 직업 전망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것이 메타버스로 넘어올 것이다. 부동산은 물론이고 스포츠, 교육 등 모든 분야가 열려있다. 이전에는 반드시 사람을 대면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 메타버스가 많은 부분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코로나19가 그런 흐름이 더욱 빨리 오게 만들기도 했다. 앞으로는 메타버스 관련 기술과 플랫폼뿐 아니라 그 속을 채울 콘텐츠를 준비하면 좋겠다.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 유튜버라는 새로운 직업이 탄생하기도 했다. 메타버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열려있는 길이 많다.

마지막, 미래 진로로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메타버스는 어렵고 신기술도 많이 활용되지만, 분명 흥미로우면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 분야기도 하다.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자라서 메타버스 관련 개발을 하고 콘텐츠를 만들게 될 텐데, 어렵지만 보람 있는 일이라고 장담한다. 만약 관심 있다면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도 추천한다. 현재 시장에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 직원 중에 고등학교 졸업 후 일을 하다가 전자공학, 소프트웨어 관련 공부를 하고 싶어 다시 대학을 가는 경우도 있었다. 워낙 변화가 빠른 시장이어서 책보다는 온라인에서 최신 기술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게 좋다. 3D 개발 플랫폼인 유니티, 언리얼 등을 공부해보는 것도 추천한다.

TIP BOX

메타버스 플랫폼 운영자

TIP. 1 _____ 준비 과정

대학에서 컴퓨터공학, 전자공학, 정보공학, 정보시스템, 정보처리를 전공하거나 이와 관련한 지식을 넓히는 것이 좋다. 도움이 될 수 있는 훈련 과정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과정, 시스템 개발자 과정, 데이터베이스 과정, 컴퓨터 네트워크 과정 등이 있다.

TIP. 2 _____ 적성 및 흥미

새로운 기술이 끝없이 쏟아져나오는 분야이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신 기술과 흐름에 대해 꾸준히 배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신 트렌드를 알기 위해 정보 검색 능력도 중요하다. 또한, 여러 분야에 폭넓은 관심을 두면서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깊이 파고드는 성향이 잘 맞는다.

※ 참고: 진로정보망 커리어넷(https://www.career.go.kr/)

시작을 위한 끝의 도시

양楊구口

끝을 향해 간다. 시작을 위해. 이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이 찾아올 것이다. 봄이 오면 어미의 따뜻한 기운이 한반도를 감싸 안아줄 것이다. 험난한 세사를 잘 견뎌왔노라며 양팔을 벌려 겨울을 지나온 이들을 안아줄 것이다. 그리하여 계절은 험난한 세파에도 끊어짐 없이 내내 이어지고 있었음을 알려올 것이다. 겨울을 봄처럼 나기 위해 택한 여행지는 강원도 양구다. 한반도의 배꼽이라 불리는 곳, 작은 한반도를 품어 안고 있는 곳, 북한과 남한의 경계지대에 위치한 땅, 양구로 간다.

글 _ 강지영 객원기자

양구는 국토 중앙에 위치한다고 하여 한반도의 배꼽이라 불린다. 어미와 태아가 연결되어 있었음을 알려주는 배꼽에는 작고 거대한 세상이 담겨 있다. 구멍 안에 어미에게서 아이로 이어지던 마음의 소우주가 들어 있다. 한반도의 배꼽인 양구에는 전쟁의 역사가 있고, 한반도가 있고, 따사로운 바람이 있다. 고즈넉한 땅 양구는 태아로서의 끝이자 신생아로서의 새 탄생을 알려주는 배꼽을 닮았다.

새 단장 중인 땅굴과 을지전망대 밑에 전쟁기념관과 통일관이 나란히 자리를 잡고 있다. 전쟁기념관과 통일관 가운데 서서 전쟁과 통일을 모두 기념해야 하는 아픈 역사를 마주한다. 휴전과 분단 그사이에 놓인 오늘이라는 시간을 더듬어 전쟁기념관으로 들어선다. 가칠봉, 949고지, 단장의 능선, 대우산, 도솔산, 백석산, 펀치볼, 피의 능선, 크리스마스고지 전투 등 9개의 전투를 기리며 세워둔 기둥을 지나온다. 전투명과 전투 기간과 고지의 높이 등이 새겨진 금색 명패가 오래전 생을 다한 별이 되어 가슴에 박힌다. 전장의 군인과 철조망으로 채워진 벽을 지나 전시실로 들어선다.



파로호 한반도 섬



1

전쟁과 통일의 역사를 지닌 한반도의 배꼽

벽에 붙은 전쟁사를 넘어다보며 이른 곳, 오래된 총이 바닥을 채우고 있다. 총과 탄피를 안은 유리 바닥을 어찌 밟고 가야 할지. 형언하기 힘든 두려움이 몸을 굳게 한다. 나도 모르게 뒤로 발을 빼며 호흡을 가다듬는다. 비통함과 원통함을 느끼는 것 또한 전쟁에서 떨어져 나와 평화로운 오늘을 맞고 있는 후손의 알량한 감상일 터. 발을 앞으로 내디딘다. 소리가 없는데 총성이 들리고 바람이 없는데 모래바람이 인다. 다음으로 들어선 곳, 천장에 매달린 철모 사이로 햇살이 들어있다. 겨울 해는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데 철모는 얼음처럼 차갑다. 양구지역 전쟁 내사자 3,800명, 그 중 실명을 알 수 있는 내사자는 1,100명. 죽어서도 제 이름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내사자 명단 앞에 고개를 숙인다. 전시실을 나와 2층에 이른다. 탱크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게 만드는 지난 역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전쟁 당시 사용했던 무기로 전시실을 꾸며 전쟁을 기념하게 만든 서글픈 역사를 어떻게 소화해야 할지. 날개를 폈다 접기를 반복하는 새 편에 평화가 도래하기를 바라는 소망을 전해본다.

전장의 총성을 뒤로 물리고 통일관으로 간다. 통일관은 1996년 북한을 알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관하였다. 단층의 소담한 건물 안에 북한이 있고 남한이 있고 한반도가 있다. 북한 사람들의 일상을 보여줄 수 있는 옷과 장신구와 생활용품을 모아둔 전시실에 이른다. 시계와 인형과 고려산삼과 성냥 등으로 채워진 벽을 지나 가방과 하얀 구두와 하얀 목걸이가 놓인 벽을 마주한다. 하얀 구두를 보는데 가슴에서부터 울컥하는 뭔가가 치민다. 이념이 뭔지도 사상이 뭔지도 모르는 평범한 이들의 일상이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이다. 무엇이 이토록 긴긴 분단의 역사를 이어오게 한 것인지, 우리는 왜 이 좁은 땅에서 남북으로 나뉘어 등을 맞대고 있어야 하는지, 그 전쟁은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남북의 역사를 읊조리는 전시실을 둘러 나와 '인사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조각상 앞에 선다.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는 작품 앞에서 반성을 읽어낸다. 분단선이



2

1 전쟁기념관
2 파로호 한반도 섬
3 4 박수근 미술관



3



4

없음에도 이산가족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네 일상과 이 순간에도 끝없이 반복되고 있는 갈등 때문이다. 조각상 옆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선다. 실패와 좌절에 둘러싸여 아픔으로 밤을 지새울 이들의 가슴에 평온이 깃들기를 바라본다.

과거와 오늘을 평화로 잇다

아픔을 머금은 채 이른 곳은 한반도 섬이다. 파로호에 자리잡은 한반도 섬은 국내 최대 규모 인공습지다. 해안에 분단의 역사가 박제되어 있다면 파로호의 한반도 섬에는 화해와 평화가 깃들어 있다. 산책로를 따라 호수를 건너면 한반도 모형의 땅에 이른다. 한반도의 배꼽이라 불리는 양구 가운데 또 하나의 한반도가 있다. 습지로 만든 소(小)한반도가 평화에 이르는 탯줄이 되어 과거와 오늘을 이어주고 있다. 호수에 실려 오는 겨울바람을 음미하며 여정 중 만난 길벗과 함께 한반도를 한 바퀴 돈다. 전망대에 올라 한반도를 내려다보며 세파에 조각나버린 이들의 가슴이 기워지기를 소망한다.

달리지도 않았는데 숨이 가빠오는 것은 우리네 역사가 그만큼 질곡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바람의 길을 따라 박수근 미술관으로 들어간다. 이 길은 엷은 겨울바람을 벗 삼아 나를 만나러 가는 길이다. 거친 암석의 질감에 부드러움을 담아낼 수 있음은 세월의 파고를 그만큼 버텨냈기 때문일 터. '요철(凹凸)'이라는 제목을 내건 전시를 거쳐 박수근 화백의 묘에 이른다. 묘소 앞 마른 꽃다발에 담긴 누군가의 마음이 전해준 미소를 머금은 채 건물들을 차례차례 거쳐 나온다. 뉘엿뉘엿 지고 있는 해에 안겨 '요철(凹凸)'이라는 전시 제목을 곱씹는다. 굴곡 없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 세사(世事)는 어쩌면 울퉁불퉁한 것 천지일지도 모른다. 요철 중에 나타난 평탄한 길에서 잠시 숨을 돌리고는 다시 그 울퉁불퉁한 그 길로 들어서는 것이 인생일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을 묵묵히 나아가는 일이 날 때 부여받은 나라는 우주를 열어가는 길일 것이다. 한반도의 배꼽이라 불리는 양구로 신선한 바람이 불어 들어온다. 광활한 우주가 눈 앞에 펼쳐진다.

마음의 방을 정리하기 위한 철학상담

글 _ 이진오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 철학적 사유가 정리를 위한 넓은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다지 쓸모가 없는 물건들을 주워와 애지중지 쌓아두는 분들이 종종 TV에서 소개된다. 멀쩡한 집을 폐가로 만들고 집주인도 그 일부가 되어버린 것 같아서 당장이라도 정리를 도와주고 싶다. 하지만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누구도 빗자루 하나 잡을 수 없다. 위태로운 물건이라도 치울 수 있을지 모른다. 그때뿐이다. 집주인의 마음이 정리되지 않는다면, 집은 다시 쓰레기 더미가 된다. 차갑고 텅 빈 마음을 채워줄 따듯하고 번듯한 대체물이 나타나지 않는 한, 집주인에게는 그대로가 좋다.

그런 특별한 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속으로 '왜 정리를 못 하지, 참 답답한 인생이구만' 하면서 짐짓 자긍심을 느낀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도 정리가 필요한 것들이 꽤 있다. 우선 무엇보다도 남아도는 '살'이 정리가 안 된다. 살을 빼야 하는 이유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다. 게으름과 몸에 밴 습관이 주범이다. 다이어트에 들이는 노력과 거기서 얻어지는 결과보다는 맘 편히 먹고 늘어져 쉴 때 얻는 자유와 만족감을 '선택'해서 그런 경우도 많다. 과거보다 오늘날은 선택지가 많아지고 시간 여유도 늘었다. 아메리카노를 마실지 카페라테를 즐길지 미리 정하지 않고 주문대 앞에서 서성거린다고 해서 꼭 나쁜 건 아니다. 무엇을 선택해도 좋기 때문이다. 고민의 시간이 설렘과 기대로 채워지기 때문이다. 모든 형태의 결정장애와 정리되지 않는 상태가 꼭 나쁘지만은 않은 것이다. 그러고 보면, 숙고 끝에 현명하게 취사선택해야 할 문제가 우리 삶에는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다. 영화 <모가디슈> 중에는 "살다 보니 진실이 두 개인 경우가 있습디다."라는 대사가 나온다. 이것도 답이고 저것도 답일 수 있다. 이것도 글렀고 저것도 글렀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나의 선택으로 정리되는 내면의 방

그런데 어느 것이 옳다고 확답을 못 하더라도 신중하게 어떤 것은 선택하고 어떤 것은 버려야 할 때가 있다. 선택이 가야 할 길의 방향을 틀고, 걸어온 길의 이름을 바꿀 때가 그렇다. 사람마다 선택의 대상과 방법이 다를 수도 있다. 그리고 사회적 존재로서 나는 남의 시선을 무시할 수도 없다. 또, 운명적인 선택이라고 해서 꼭 나 혼자서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혼자만의 결정이라고 믿었지만, 알게 모르게 그리고 가깝거나 멀게 바깥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타자의 시선이 내 마음 중심에 들어와 나의 존재를 압도할 때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내게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해보지 않고 남의 시선을 따라 산다면, 내가 나로서 살았다고 장담하기 힘들다. 나를 압도하는 타자가 선생님이든 부모님이든,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라도 마찬가지다. 이럴 때 나는 내 존재를, 내 내면의 방 이곳저곳을 정리해야 한다. 버릴 것은 버리고 중심에 둘 것과 구석에 둘 것을 스스로 정해야 한다. 정리를 위해서 숙고에 숙고를 거듭했으나 여전히 내 마음의 중심에 놓아둘 것도 생길 것이다. 그것이 밖에서 왔더라도 내 판단과 선택을 통과한 것이니 내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리'라는 작업을 말하면, 흔히 그 대상만을 생각

하기 쉽다. 하지만 누가 왜 어디를 정리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정리의 대상과 방식도 완전히 달라진다. 가령 내가 내 마음속에 놓인 불편하거나 해로운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나의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것들을 살펴봐야 한다. '정체성'에 대한 성찰은 철학적인 작업인 것만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 나를 어떤 누군가로 만드는 요소 중에는 사고방식, 가치관, 꿈, 상처, 인간관계, 기질, 몸, 경제력 등등이 있다. 앞엣것들일수록 철학적 숙고가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뒤엣것들은 심리상담사나 의사, 은행직원의 의견을 먼저 귀담아듣는 게 좋다. 좀 더 근본적이고 총체적으로 판단하길 원한다면, 뒤엣것들도 철학적으로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철학은 문제를 비판적이고 논리적으로 보게 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이고 전체적이면서도 과학적 객관성을 넘어서 초월적으로 보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철학적 사유의 성격은 '나와 세계'를 어느 한 관점에 고착시키지 않고 개방적이고 창조적으로 만든다. 철학적 사유가 정리를 위한 넓은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때로는 의미 깊은 진실이 정리를 도와준다

그런데 철학적 숙고만으로 정리가 완성되는 것도 아니다. 시간이 진실을 숙성시켜서 드러낼 때라야 제대로 정리되는 일도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자란 코사족 소년 만델라는 영국식 교육을 받았다. 영국식 사고방식이 그의 생각의 틀로 자리 잡아서 영국의 이상과 영국의 문화가 우월해 보였다. 아프리카적인 것은 미개해서 지워버려야 할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인식을 마친 만델라는 한 추장의 연설을 듣는다. 추장은 자신들이 자기 나라에서 노예가 되었으며,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힘도 권력도 없다고 말했다. 추장의 이 말에 만델라를 포함한 청중들의 얼굴은 점점 분노로 일그러졌다. 추장의 연설은 선진문물을 전한 영국에 고마워할 줄 모르는 무지한 자의 언동이었다. 구질구질한 상황에서 벗어나 부와 높은 지위를 가질 희망을 품은 이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무책임한 짓이었다. 만델라는 추장의 연설을 잊고 살았다. 하지만 추장의 말에 담긴 진실이 만델라의 가슴속에 씨앗으로 파고들었다. 그가 식민지 청년으로서 경험한 세월은 추장의 말이 진실임을 보여주었고, 추구해야 할 것과 솎아내야 할 대상을 바꾸어 놓았다. 이로써 만델라는 새로운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됐고, 그렇게 새로 태어난 만델라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던 거대한 장벽을 허물고 새로운 세계를 열었다.

물론 만델라의 선택이 절대 선이거나 절대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다. 남아프리카 토착민들이 영국의 지배에 저항하지 않고 온전히 영국식이 되었다면, 지금보다 더 멋져 보이는 생활을 하고 있지 말란 법도 없다. 최소한 만델라 자신은 27년을 감옥에서 보내지 않고 변호사로서 풍족하게 살 수 있었을 것이다. 만약 그가 한 번뿐인 자신의 삶을 위해서 눈앞의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의미 깊은 것들을 스스로 살핀 후 다른 선택을 하였다면, 그것 역시 그의 삶이다. 하지만 그런 검토의 시간이 없었다면, 아무리 좋은 삶이라도 그의 것이라고 말하기 힘들다. 청중들을 불쾌하게 만들었던 추장의 말은 어떻게 소년 만델라의 가슴에 씨앗으로 파고들어 지금의 만델라를 만들 수 있었을까?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의미 깊은 진실을 담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 그런 진실의 씨앗을 청년들의 가슴속에 심을 수 있다면, 그는 스승이자 철학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HONORARY REPORTER

FOCUS 01

겨울방학에 기초학력 잡아라!

홍지희 명예기자

면접 아이디어 (각 교과와 접목)

부산 연포초등학교(교장 김경주)는 '다깨침윈터스쿨'과 '두드림 프로그램', '영어캠프' 등 개별 맞춤형 다면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다지고 있다.

'다깨침윈터스쿨'은 부산 기초학력 보장 교육의 핵심 과제인 '다깨침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겨울방학 동안 학습 결손 예방 및 제때 지원을 위하여 방학 중 교원이 학습 지원대상 학생을 집중적으로 책임 지도하고 기초학습 부진을 해소하고 학습 동기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이다. 연포초는 기초학력 향상 및 학습동기 유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5~6학년 학생들을 2~4명씩 소규모로 그룹화해 학생 눈높이에 맞는 학습을 제공한다.

'두드림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더욱 집중적으로 학습자의 심리 정서적인 안정을 위한 진로체험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교내 두드림 담당 교사가 직접 지도해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는 물론이고 학생 참여도와 학습효과, 정서 안정 효과도 동시에 이끌어냈다.

'영어캠프'는 3~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어민 선생님이 3~4, 5~6학년으로 나누어진 2개의 각 클래스에 맞게 수준별 의사소통 활동과 체험중심으로 구성하여 학생들의 만족도가 특히 높았다.

코로나19로 등교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던 탓에 충분한 학습이 이뤄지지 못했던 점 등이 학업성취 수준 저하에 영향을 주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높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도 연포초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FOCUS 02

선생님들은 방학 때 무엇을 할까?

성완 명예기자

학생들은 방학을 활용하여 보충 학습을 하거나 새 학년도 교육과정을 예습하는 학습 활동을 주로 한다. 또한, 그동안 즐기지 못했던 독서나 운동 등의 여가 생활을 즐기기도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선생님들은 겨울방학 동안 무엇을 할까?

첫째, 선생님들은 새 학년도를 준비한다. 작년보다 발전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겨울방학과 봄방학을 새 학년 집중 준비기간으로 정하여 본격적으로 새 학기를 준비한다. '새 학년 맞이'를 통해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과 함께 전 교직원이 모여 학교 비전을 공유하고, 새롭게 바뀐 교육청 지침을 확인하며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회의를 통해 교원의 업무 분장 등을 협의하고, 과목별 수업 시수를 분담하는 과정도 거친다. 1년간의 학사 운영 계획과 학사 일정을 확인하고 교육 계획을 세운다. 새 학기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공유한 후에는 교과별, 부서별, 학년별 선생님들끼리 모여 회의를 한다. 새롭게 오신 선생님도 만나고, 새 학기 수업 시수를 확인하며 담임 및 업무 배정도 받게 된다.

둘째, 선생님들은 질 높은 수업을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연수를 듣는다. 새로 개정된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다음 학기에는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꾸려나갈지 교과별, 개인별로 계획하기도 하고 새로운 수업방식에 대해 고민하기도 한다. 교사들은 1년 동안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연수도 있고, 자신의 직무역량을 기르기 위해 신청하여 이수하는 직무 연수도 있다. 또한, 교내에서 자체적으로 교사 연수를 하기도 한다. '새 학기에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까? 다양한 교육활동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우리반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할까?' 등의 구체적인 고민을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회의를 통해 고민한다.

셋째, 선생님들은 지난 학기 동안의 학생생활기록부를 정리하고 점검한다. 학생생활기록부에는 교과별 세부능력 특기사항, 동아리 활동 사항, 자율활동 특기사항, 행동 발달 사항, 독서 활동 사항 등 다양한 항목이 있는데 학생들의 활동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누가하여 기록하도록 되어있다. 학기 중에서부터 기록해왔더라도 수업과 업무를 병행하느라 완벽하게 학생부를 끝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방학을 활용하여 그 내용을 정리하고, 틀린 내용이나 오탈자가 없는지 점검한다.

넷째, 선생님들은 방과 후 수업을 운영하거나 방학 중 행사를 진행한다. 학생별로 보충 및 심화 학습이 필요한 과목이 다르므로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방과 후 수업이 방학 중에 운영된다. 선생님들은 자신의 과목에 맞춰 방과 후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 향상을 돕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노력한다.

학생들에게나 선생님들에게나 방학은 쉼표이자 느낌표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짜여있던 바쁜 일과에서 잠시 벗어나 숨을 돌리는 쉼표이자,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힘을 돋우는 느낌표인 것이다. 선생님들과 학생들 모두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할 새 학년도를 기대하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겨울방학을 보내길 바란다.

FOCUS 03

메타버스 세상은 어떨까요?

구영목 명예기자

부산 연학초등학교(교장 이경옥)는 최근 3~6학년을 대상으로 부산어린이창의교육관 메타버스 체험학습을 하였다. 가상의 공간에서 무엇이든 체험해 볼 수 있는 메타버스가 교육현장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요즈음, 출발하기 전부터 학생들에게 큰 흥미와 호기심을 안겨 주었다.

부산학생교육원 창의과학관의 전시관과 메타버스 체험실 등에서 '새로운 세상을 만나다'를 주제로 메타버스 특별 기획전이 열리고 있다. 이번 특별전은 실감형 메타버스 체험을 통해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과학문화 대중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메타버스 체험실에서는 우주비행사 가상훈련, 메타버스 스포츠 교실, 카드보드로 가상현실체험, 마인크래프트와 함께하는 가상세계 건설, 영화로 메타버스 세상 미리보기 등 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학년별로 2개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김영호(4학년) 학생은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곳이라서 좋았고, 다음에 다시 오고 싶다."라고 말했다.

놀이와 학습이 합쳐진 가상현실 체험을 통해 학생들에게 창의, 융합 경험과 사고력을 넓힐 수 있는 유익하고 신선한 프로그램이었다. 또한, 이러한 체험학습을 통해 미래의 교육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조금씩 미래의 수업이 디자인되길 기대해 본다.






※ 행복한 교육 웹진(www.happyedu.moe.go.kr)에서 보다 다양한 기사를 확인하세요.

희망 사다리

교사의 스승

나무를 비추는 햇살

꽃다발

꿈발

행복한 레시피

내가 직접 볼 수는 없지만, 행복한 교육을 통해 학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 아이의 책가방

희망을 전하는 우체통

꿀벌

사람이 보이는 풍경

행복한 교육은 사람냄새나는 교육주체들의 모습을 생생히 그리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하는 『행복한 교육』은 '○○○'이다."

지난 1월 10~14일, 행복한 교육 홈페이지(http://happyedu.moe.go.kr)에서는 웹진 개편 이벤트가 진행됐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한 교육'의 정의와 그 이유를 답변으로 받았는데요. 총 3,357분이 이벤트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이 중 편집실의 마음을 움직인 참신한 답변 몇 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행복한 교육을 사랑해주시는 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 면접 질문이라면?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또다른 안경

사계절

자라나는 나무

민들레꽃

희망의 보물창고

함께하는 소통의 다리

꽃씨를 품다가 퍼뜨리는 민들레꽃처럼, 다양한 꿈과 소식을 품고 있다가 아이들에게 퍼뜨려 다양한 미래를 그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스펀지

행복한 교육을 통해 여러 교육 현장의 유익한 정보를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채로운 발자국들

전국지도

낚싯대에서 건져 올린 물고기

지평선

낚시를 해본 사람이라면 오랜 기다림의 끝에 찾아온 물고기처럼 반가운 것이 없을 것이다. 행복한교육 매거진 역시, 잠잠하고 고요한 가운데서 찾아온 반가운 소식 같다. 우리 아이들의 꿈이 자라나고 선생님들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한 학교 현장의 생생함은 펄떡이는 물고기와 같지 않을까...

내 아이의 현재와 미래

주말

교육 신뢰회복

고교체제 개편

자사고·외고·국제고 '25년 일반고 전환 추진('20.)

고입 경쟁률('18. → '21.)

자사고	외고	국제고
1.46:1	1.57:1	2.29:1
1.19.1	1.12:1	1.53:1

대입공정성 강화

- 대입 사전예고제(4년 전 공표), 입시 부정행위 입학취소('19.)
- 사회통합전형 신설('21.)
  ※고등교육법 제정

사학혁신

사학혁신 추진방안('19.)

임원 결격기간 연장 등 법령개정 30건('19~'21.)

대형사립대 종합감사 완료 ('21. 16교)

학생 대상 폭력 근절

성희롱 성폭력, 학생선수 폭력, 학교폭력, 아동학대, 학생자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21.12.)

미래교육 체제 전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전환

5년간('21~'25.)18.5조 원

약 1,400개교 미래학교 추진

'21. 484교 조성개시

고교학점제 도입

마이스터고 '20.1학기 도입

특성화고 '21. 518교 전체 연구·선도학교

일반계고 '21. 연구·선도학교 939교(55.9%) 고교학점제 근거마련('21.)

2022 교육과정 개정 추진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 교육과정 논의 ('21.4.~)

총론 주요사항 발표('21.11.)

교원 역량 강화

'20. 교원양성 교육과정 유연화

'21. 교·사대 미래교육센터(28개)

'21.12.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

미래역량 강화

SW 초·중 SW교육 필수화 완료('20.)

AI 초·중·고 AI과목 도입('20.9.)

원격교육 원격교육법 제정 ('21.9.)

맞춤형 교과서 확대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405교(도입) '20. → 831교 '21.

지역혁신 플랫폼 도입

'20. 경남, 광주·전남, 충북

'21. 울산·경남,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 충북

※71개 대학 206개 기관

신기술 인재 양성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21. 8개 신기술분야, 46교

첨단·융합학과 정원 조정 45교 4,761명 학과 신설 16교 1,203명

대학 혁신 역량 강화

대학혁신지원사업

4년제 '19. 5,688억 원 → '21. 6,951억 원

전문대 '19. 2,908억 원 → '21. 3,655억 원

연구, 산학협력 활성화

4단계 BK21('20~'27.)

3단계 연 17,000명 → 4단계 연 19,000명

LINC+

산학연계 교육과정 '17. 2,105건 → '21. 2,424건

채용약정 학생 수 '17. 7,105명 → '21. 11,984명

평생교육바우처 도입·확대

지원 인원(명)

5,361 '18. → 6,401 '19. → 10,374 '20. → 19,531명 '21.

※발급대상 전 국민으로 확대('21.6.)

평생학습 접근성 강화

K-MOOC 강좌 수 '17. 324개 → '21. 1,071개

매치업 '18. 도입 → '21. 48개 과정 운영

전문대 질 제고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도입 '21. 12개교 9개 분야

마이스터대 신규 추진 '21. 5개

직업계고 역량 강화

- 특성화고 혁신 지원 '19. 150교 → '21. 250교
- 직업교육 혁신지구 도입 '21. 5개
- 고교취업연계장려금 '19. 300만 원 → '21. 500만 원

정책 거버넌스 혁신

사회정책 조정·협력

비전 제시: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18.9.)

인재양성 협업: 인재양성 정책 혁신방안('21.11.)

사회현안 대응: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13회 35건 '18. → 23회 70건 '21.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준비

국가교육회의 운영('17.9.), 국가교육위원회 공론화 ※ '17.9.~'21.7. 총 13차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제정('21.7.)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 발족 ('21.9.)